『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15권 1호(2009년 6월) 267-335

『율리시스』 독회: 「태양신의 황소들」

손 승 희

〈일러두기〉

■ 기록 내용은 다음 세 가지, 즉 독회에서 개진된 견해를 정리자가 기록한 부분 (발의자 이름 표시), 독회에 참석한 회원이 독회 후에 첨삭 정리해서 보내온 메모 (발의자 이름 뒤에 *표시), 불참한 학회 회원이 개별적으로 보내온 의견 (발의자 이름 표시)으로 구성된다.

■ 1차 정리한 독회기록문은 참석자에게 초고 형식으로 회람되어, 첨삭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거쳐 완성된 독회기록문을 학회홈페이지 및 회원에게 최종본으로 송부한다.

■ *Ulysses*는 Gabler 판본에 의거하여 장과 행을 표시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를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 *U*라고 표시한다.

■ 독회에서 거론이 되었더라도 Gifford의 주석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록할 경우 (G)로 표시한다.

■ 발제자의 모두(冒頭) 발제는 <발제>, 참가자 간의 의견 교환은 <토론>으로 표시한다. 사후 접수된 의견 가운데 제목이 붙어있고 비중이 있으며 논점이 명확한 해제의 글은 <토막촌평>으로 분류한다.

■ 아래의 기록 정리는 앞으로 계속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으며, 그 최종본을 학회지에 일괄 전재한다.

제57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507호
일시: 2008. 6. 21. (토) 오후 2:00-5:45
독회진행자: 김석
정리자: 손승희
범위: *Ulysses*, Chapter 14 "Oxen of the Sun," Lines 581~738
참석자: 홍덕선, 전은경, 김상욱, 강서정, 남기헌, 김경숙, 김길중, 이인기, 이종일, 최희재, 김성훈, 김석, 손승희

〈발제〉

형식에 있어 다니엘 디포우의 문체를 흉내 내던 문단이 그 중간쯤부터는 조나단 스위프트의 문체로, 특히 스위프트의 "A Tale of a Tub" 스타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이스는 일종의 풍자에 대한 풍자, 또는 알레고리에 대한 알레고리를 시도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581행 이하 빈센트 린치와 딕슨의 대화에서 등장하는 헨리 2세와 (로마 교황으로서 유일하게 영국출신이었던) 아드리안 4세, 그리고 후자가 전자에게 아일랜드 지배권을 허락하며 보내준 교서(*Laudabiliter*)에 대한 신랄한 풍자는 스위프트가 그의 초기 저작에서 행한 왕정복고시대에 대한 정치·종교적 비판을 12세기 아일랜드의 식민지 상황에 투영해 행하고 있다. 여기서 교황의 교서/황소(bull)는 아일랜드가 유럽 정치 체제의 일원으로 귀속됨을 알리는 역사적 첫 공식문서라 할 수 있는데 조이스는 정작 그 황소가 아일랜드에서 얼마나 환대를 받고 살찌워지는가를 묘사함으로써 영국과 로마 가톨릭교에 더불어 특정 아일랜드인들(여성)의 종속성에 대한 비판도 함께 감행하

고 있다(587-589행 “the women of our island...,” 595-612행 “maid, wife, abbess and widow to this day affirm...”). 이러한 아일랜드인의 반자주적 모습은, 유럽연합 통합의 가속화를 위해 체결된 리스본 조약에 대해 소속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국민투표를 실시, 지난 12일 부결시킨 현재의 아일랜드와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는 동시에 우리의 역사적 상황에서 각기 1905년에 일본과 미국 사이 체결된 Taft-Katsura 조약과 현재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연상시키기도 함.) 이어지는 문맥에서 반복되는 헨리 및 해리에 대한 언급은 각기 헨리 4세와 7세 그리고 헨리 8세에 대한 인유로 볼 수 있는데 특히 헨리 8세와 아일랜드 태생 여인 앤 볼린 간의 염문, 그리고 뒤따른 교황과의 불화 및 수장령(the Act of Supremacy) 선포에 대한 패러디가 특히 눈길을 끈다. 그런데 이 문단에서 – 특히 639행 이하 아일랜드 남자들의 미국행 이민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 왜 조이스는 아일랜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후자를 그토록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을까?

멀리간과 배넌이 술자리 도착을 알리는 651행 이하에서 스타일은 조셉 애디슨의 문체로 전환되고 있다. 학생시절 조이스는 애디슨을 “세계에서 가장 위선적인”(the world’s greatest hypocrite) 작가라고 싫어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멀리간이 중심인물로 부각되는 이 문단에 더없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여성의 도덕관과 미적 감각의 개선을 피력했던 애디슨을, 자신이 통치하는 람베이 섬에 찾아오는 여자들을 범해 임신시키겠다고 선언하는(684-688행) 멀리간과 병치시킨다는 점에서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 장의 주제가 ‘임신 혹은 다산을 거부하는 피임이라는 범죄’라고 천명한 조이스의 발언을 과연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할지 의심하게 만들기도 한다. 한편 멀리간의 등장과 그의 외설적 발언은 이미 술자리에서 오간 외설에 충분히 지칠 대로 지친 블룸에게 전혀 달갑게 들릴 리 없을 터인데 특히 배넌이 멀린거에서 만난 밀리에 관해 언급하는 부분(717-719행)은 애처롭게까지 보인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바로 이때 멀리간은 화제를 돌려 준비된 음식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질문하며, 이어 옆자리에 앉은 블룸을 발견하고는 그가 병원을 방문하게 된 이유를 묻는다(719-722행). 두 개의 개별적인 질문이 나란히 연결된 이 문장은 블룸이 현 상황에서 마치 마지막 만찬에 참석한 예수와 같은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블룸은 종국엔 자신을 배신할 제자를 대하는 예수처럼 거리감을 유지하며

("preserving his proper distance" 722-723행) 멀리간에게 퓨어포이에 대한 자신의 근심을 솔직히 털어놓는다. 술자리 잡담은 이내 다시 배 나온 멀리간이 임신을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외설적 농담으로 이어진다.

〈토론〉

326쪽 529-328쪽 651행까지 긴 문단 하나... 이 중 327쪽 **581행**부터 해당. Defoe 모방에서 Swift 모방 (우의와 풍자의 겹 의미). Mr. Vincent Mr. Dixon 교황의 교서(bull)가 아일랜드에서 살찌워짐, 황소에게 잘 보이려는 **595행** the woman of Ireland **592행** 아일랜드 여성에 대한 비판, 화자의 진정성과 풍자의 정도 생각해 봄 직함. 역사 정치적 확대 해석요소 있을지. 아일랜드 민족의 자주적 선택 아니라 교황의 교서에 의해 편입되고 따라가는 세태. 2008년 6월16일 유럽연합 가속여부를 아일랜드 국민투표에 붙인 유일한 나라, 결과는 부결... 『율리시스』 작품 속 모습과는 대조적임. 헨리 2세, 4세, ... 7세, 8세에 대한 언급으로 넘어가고 있음(김종건 번역 참조) **629행** 영국국교의 수장으로서 교황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역사적 사건을 우스꽝스럽게 묘사 **639행** the men of Ireland, 이번에는 남자들 묘사. 미국행 이민을 떠나는 모습. 성적으로 구분된 의미가 있을는지. **594행** to make up he taught -<김경숙> 거세당한 황소의 상쇄 기술

－아일랜드의 여성상

<전은경> 왜 영국인들에게 우호적인가 설명 방편으로 *Finnegans Wake* 8장, 수로가 많은 아일랜드로 바이킹이 침입 아일랜드의 물줄기(여성)가 침입하는 이방인 남성을 제 나라로 받아주는 모습 있음. 상징적 표현. 애나 리비아와 HCE의 결합에도 조이스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냉소적인 생각 반영? *Ryan's Daughter* (1970)라는 영화의 예-실제 남자에게 끌려 주책 맞게 받아주는 여자의 상이 아일랜드 역사에 있다고 보임. 유혹에 넘어가는 여성의 면

<남기헌> 교황의 bull이지만 국왕의 bull이 됨. union의 이미지도 결혼의 이미지. John Bull의 상정. 아일랜드 시골에서 여자가 밤길 유혹함(*Portrait*). Deasy 교장 역사를 망친 것이 여자다.(*Ulysses* 2장)

<김상욱> 스티븐 어머니 등 맹목적 신앙에 대한 풍자

<남기헌> 교황의 교지를 남보다 여가 더 잘 따른다는 식

<김상욱> 고백성사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여성의 성향을 에둘러 풍자한 것

<홍덕선> 그렇다면 여성이 덜 정치적이라는 의미? 영화 『색계』에서 여성을 내세워 적의 정보 캐려 하나 막상 사랑에 빠지는 결과. 여성으로 대변해서 보여주는 정치적인 세계?

<강서정> 아버지 살해 내용이 아일랜드 독립에서 의미 갖는 점을 찾아볼 수도. 다른 아일랜드 작품에서도 영국-군인-남성으로 기울어있는 연결고리가 발견됨. *U* 13장 에메트 처형 장면에서 울다가던 여자가 옥스퍼드 출신 지식인에게 끌리기도. 여성 개인 이미지너머 국가적 정치 이미지와도 연관 있을 듯.

<강서정 추가> 식민지에 여성성을 부여하여 제국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내세우려는 태도는 비교적 흔한 현상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배를 받고 있는 국가는 그러한 논리를 예민하게 인식하며 자국의 남성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음. Synge의 *The Playboy of the Western World*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살해" 모티프도 그런 맥락에서 『율리시스』 속 인물들의 문제의식과 통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음. Synge의 작품에서 그렇듯 『율리시스』에서도 남성성이 두드러지는 인물들에게 여성들이 끌린다고 전제하고 있음. 이처럼 남성-영국인-군인의 구도는 아일랜드 사회 및 영화, 문학 작품 안에 각인되어 있고, 남성-영국인-군인과 사랑에 빠진 여성이 국가의 배신자로 지목되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문학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고 봄.

<전은경> *U* 12장에 나온 여성들 모습도 연상됨.

<김상욱> 조이스 작품에 페미니스트 공격 받을 여지 있음.

<남기헌> 여자들 기준으로는 거의 페미니스트 (웃음)

<전은경> 정치적인 국면외의 긍정적인 면을 보면, 비정치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현실에서 여성이 훨씬 강하다고 봄. nature와 politics에서 여성은 nature에 강한 듯. 영미문학 강연에서 6.25 겪으면서 한국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었는데, 어머니의 힘을 실감하면서 현실적으로 빠른 속성이 여자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 <남기헌> 헨리 8세의 일화 예 boat race 실제인가 풍자 위해 내세운 이야기인가?

<김경숙> Gifford 주석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만든 얘기?
<홍덕선> 희화적인 것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았을 터.

–<전은경> 580행 irish 582행 ireland 표기상 Ireland와 ireland의 의미
<김상욱> Irish bull 논리적인 상충되는 이야기라는 뜻
<남기헌> Irish bull in an English china shop 전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뜻
<최희재> 뜻 그대로 상황을 생각해 봐도 부조화가 느껴짐, 어불성설
<김상욱> 언어유희 즐겨 사용한 예 580행 Mr. Stephen 이하는 아일랜드 사람이 즐겨 썼던 모순어법은 아닌지. paper bull 교황의 칙서
<김석> 민족으로 생각하면 irish, 스티븐 아니라 화자가 이렇게 옮겼을 터. 민족의 개념 이전 부족 정도로 존재한 때.
<전은경> 하나로 통일되기 이전 시기인 듯.

–<김상욱> 585행 plumper never shit on shamrock 의미는?
<김석> 아일랜드에 나타난 적이 없다는 정도의 뜻.
<전은경> 침략한 적이 없다?
<남기헌> 그 교황보다 더 뚱뚱한 사람은 없었다.
<김석>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없었다.
<남기헌> 뿔 화려함 보면 그에 매료되어 여자들이 따라 다닌다 식. 니콜라스 교황이 거세당한?
<최희재> 교황이 보낸 왕? 황소가 거세당한 것?
<손승희> 상징적으로 거세된 칙서의 비유?
<김경숙> 니콜라스 교황은 farmer로 나옴. 황소가 아님.
<남기헌> 영국 국왕에게 아일랜드 양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내용 바뀜

–<최희재> bull의 뜻이 여러 가지로 변형 metamorphosis
<남기헌> 다이달루스도 크레타 왕에게 황소 만들어 주는 것과 연관?
<김석> 제우스도 황소로 변해서 여자에게?
<최희재> *P* 부에노스 스테파노스 제물로 바쳐지는 소
<전은경> *P* 4장 끝에 언급됨

<남기헌> 화관 두른 소로 나옴

– green 론

<남기헌> 613행 green은 헨리7세가 좋아해서 국가 상징색이 된 건지

<전은경> 아일랜드의 목초지와 습한 기후로 국가 특산물인 소를 잘 키워야

<남기헌> 아일랜드가 영국의 목장 격으로

<강서정> 소문자 irish 여자 거세된 황소, 나중에 땅이 목초지 초록-남성성 거세 결국 이름만 대문자이지 여자들이 irish

<김경숙> anti-feminism 관련 이민 떠나는 남자들의 배, 641행 피식민지의 남성성이 거세당하는 측면의 고발 영국bull의 여성화//아일랜드 남성성의 극대화

<남기헌> bull 뿔 cuckold 610행 주변 여자 뺏겠다는 의미로 남자가 뿔을 세우는 인상. 치우침 없이 의미 드러내는?

<전은경> 613행 영국왕의 지시내용 Green~ 583행 cattle breeder로서 George가 필요했다와 연결된다고 봄.

<강서정> 교황을 농부로 비유하는 의미 거세된 이미지를 뿌리면서 이용하는 거세의 재생산? 여성은 빼앗기고 남성적인 사람은 미국으로 쫓겨나는 구도, 왜 교황과 농부가 연결?

<남기헌>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로서 목축에 좋은 환경을 자국 내에 수용. 농부, 경작, 초지 나옴.

<전은경> 농경지

<김성훈> 교황이 신의 대리인, 하느님을 농부로 보고 사람을 경작하는 구실, 신의 특성 부여해서 식민을 정당화하고 권위 부여하는 의미

<김석> 니콜라스 교황의 출신 볼 때 농부를 촌놈 정도로 읽었음.

<최희재> 시골 출신에서 교황까지 가능?

<전은경> 스위프트의 풍자 문체가 확연하게 읽힘. ("A Tale of Tub," *Gulliver's Travel*)

318쪽 625행은 Addison, Steele journalism 문체라는데 확인이 되는지.

–<김경숙> 646행 discover에서 recover로 동사 바꾼 의미

<김석> main 시적인 표현으로 망망대해, 바다를 다시 cover한다. 처음 가는 게 아

니라
<전은경> 말장난 생각하면서 표현
<김상욱> 헨리 8세 당대 이야기 그 이후인 듯.
<전은경> 그렇게 생각함.
<김석> 결과 후 629행?
<남기헌> 이주 시작과 별개로 본격적인 이주는 감자 기근 이후, 미국에 아이리쉬 협회 건설 18-9세기 1800년대 합방되기 바로 전에.
<김상욱> 어서 들어본 나라 미국으로, 아니면 19세기 합방 이후 이야기?
<김길중> 연도 표기 없이 일반적으로 고생하면서 아일랜드 사람이 대륙으로 건너감 이야기 says Mr Stephen 표현? 녹음에서도 그렇게 읽었는지 (네) master는 도령 정도의 뜻.
<전은경> 320쪽 580행에 나옴

–<김상욱> 헨리 언급할 때 해리라 부름. 악마(Devel)의 의미 지니고 사용?
<김경숙> bull's language는 Galic 609, 634행
<남기헌, 전은경> 라틴어
<최희재> bullshit 의미도 포함.

–<남기헌> 635행 라틴어에서 1인칭 대명사?
<손승희> 동사어미가 인칭을 가리키는 라틴어에 1인칭 대명사의 존재?
<김길중> dominos domine... 처음만 생각난다 식
<전은경, 김길중, 김석> 초보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의미. 일인칭 대명사 있기는 있을 듯.
<남기헌> 교황에게 보내는 7성사 반대론을 나전어로 칭송 받고 결혼 문제로 돌이켰음.
<최희재> 루터파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한 가톨릭교회 변론해서 교황에게서 신앙의 옹호자로 불리웠다는 사실 있음.

〈발제내용 2〉 328쪽 651행 ~ 330쪽 738행

조이스 학창 시절 Addison을 위선적인 작가라고 해서 싫어했다는데 이 문단에서 Mulligan 부각되는, 도덕개념과 미적 감각이 여자에게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과연 임신 다산을 거부하는 범죄에 대한 이 장 다산을 옹호하고 있지는 않음. 황소와 아일랜드여성과 관계 묘사한 이전에서처럼 결혼 안 한 남성이나 성관계를 피하는 남성들 이야기하고 라틴어 문장 로마와 대비하면서 게일릭 남자 언급. 이질적인 요소가 부딪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단과 비슷한 점. **719행** 멀리간이 옆에 블룸에게 인사 건넴 **722-3행** 보면 적절한 거리감 지키면서 블룸이 방문목적을 퓨어포이 부인 방문이라 대답하고 있음. **718행** Bannon 지칭 블룸이 불쌍해 보이는 문단. **719행** 예수의 만찬 장면, 예수가 주인공으로 보이는 문장 배치, 예수=블룸. 배신할 제자를 대하는 예수의 태도를 연상시킴. 분위기는 다시 음담패설로, 배 나온 멀리간에게 임신했냐고 놀림. 임신의 언급과 여성화 성 정체성에 대한 앞 문단에 이어지는 물음, 이렇게 보면 혹시 블룸의 여성화에 대한 다음 장의 전조를 보이는 장치는 아닐까?

–<홍덕선> 654행 rencounter란 단어가 있는지
<최희재> 사전에 있음 조우하다 뜻
<김길중> 실제 멀리간 모델인 고가티가 싫어했을 부분.
<전은경> 잘 나가는 고가티에 대한 조이스의 열등감도 있었을 것.
<김길중> 시도 잘 썼지... / 라틴어의 고급문화에 먹칠하기와 고상한 로마의 고약한 언어
<전은경> *FW* 영어로 쓰기 민망한 내용 라틴어로 쓴 경우 생각남. 조이스다움.

–<강서정> 655행 사러 왔다는데 / 여성적인 공간 고통과 호전성의 극명한 대비
<최희재> 학생 개인의 군대 깃발 모으는 취향인 듯 / 여성 비하하는 측면 많은데 여성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을지
<전은경> 간호사가 자리 뜨자 아수라장

–<김경숙> 656행 it

<전은경> 두 개의 it는 같은 것?
<최희재> 군대용품을 사려는 그 사람의 의도를 가리킴?
<김상욱> Gifford 주석-to buy a colour 당시 하위 장교가 돈 주고 지위를 샀다고 함. 새로운 화제를 꺼내는 것을 군대의 장악에 비유한 듯.
<남기헌> 군대와 무관한 알렉 배넌 이야기하다가 숙어 표현을 사용.
<최희재> 군인 신호 깃발이 군인과 무관할 수도. jump에 있는 일치하다 뜻 살려서 'project와 일치한다면'으로
<김석> 배넌이 콘돔 살려고 하는 것과 관련됨. 777행 a cloak of the French fashion는 콘돔 이야기
<남기헌> 배넌이 콘돔 사러왔다는?
<김경숙> 콘돔 찾는 것. 760행 이미 전쟁 이미지 써왔음.

–<최희재> I 등장 누구 이야기?
<남기헌> Milly 이야기

–<강서정> 713행 his elegance 정말 우아한 것인가? 앞에서도 civil이라면서 대조적?
<김길중> 반어적인 용법. 학식을 드러냈으니까 이렇게 표현했다 보임.
<강서정> 시릴의 문체 칭찬투를 넣어서 사용한 것인지?
<김길중> Sir Roger 등의 예를 들어서 주인공 세워놓고 ramblingly 썼을 법.
<전은경> 산만해 보이는 문체, 그런데 어떤 점에서 journalist 문체인지
<남기헌> *Spectators* 식

–<김상욱> 668행 인구 감소 금욕 정책적이었을까?
<최희재> 경제적 사회적 상황 (가난, 노처녀/노총각)과 부합되었을 것.
<김길중> "Boarding House" 혼인 앞둔 나이 36살의 등장인물 예.

–<남기헌> inhibition과 prohibition 전자가 사회적이라면 후자는 후천적인 성향?
<김상욱> 개인과 정책적 차이?
<김길중> 심리적, 사회적 (금주법에서처럼) 학식 과시한 이야기?

<남기헌> balance는 '균형 잡는'?
<최희재> balance가 수입지출 장부? 결혼에 돈이 들어서 등 inhibition이고 결혼 후에 생기는 문제라면 prohibition? 결혼여부 무관 문제가 생김
<전은경> 개인선택과 강제선택의 차이?
<남기헌> 결혼의 복잡함에 초점?
<김경숙, 최희재> 학자연하는데 알맹이는 없음, 잘난 척하는 표현
<남기헌> congenital
<김상욱> innate 생득적인
<김길중> 어원 같은 말의 다른 뜻의 나열? Mulligan의 장난질 신성 거슬러 말 fertilizer incubator
<전은경> 내용보다 말
<최희재> 의학적 용어 그러나 내용은 딴판임

–<김길중> Lambay Island는 실제 지명? 맬러하이드 (토착영주) 역사적으로 주요 지명
<남기헌> Talbot 실제 인물
<홍덕선> 맬러하이드 카슬 실제로 있음.
<김길중> Parnell은 신교도에서 배척한 것 아님. acendancy 앵글로 아이리쉬 (맬=토착영주) 크롬웰 때 비극적으로 무너진 쪽이 맬 아닐까.

–<홍덕선> 676행 womanly Bloom 확실히 Bloom인지
<김경숙> 15장에 new womanly Bloom으로 언급됨

–<강서정> 황소 경작 등 다 여성 뜻하는지? freeman~ 여성 이야기 civil elegant는 위선적임을 드러냄.
<최희재> 즐기면서 표현 씀

–<김경숙> 694행 이런 것 먹으면 정력에 좋은가 rodent
<남기헌> tubercles는 감자, fish and coneys(바위너구리: 김경숙 확인) 설취류 =rodent

<김길중> fertility로 아우를 수 있음. prolific rodents
<김상욱> 동양에서는 성교를 오래한다는 속설?
<강서정> 거세 이미지와 여성의 관련성
<강서정 추가>작품 안에서 지목되는 큰 이름들이 모두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것과 관련되는 듯함. 토지 소유권의 일종인 feehold 역시 문자 그대로는 섬의 토지권을 확보하여 그 안에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의미이겠지만, 토지가 여성과 관련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면, 또한 토지 경작과 관련된 행위를 생각한다면 법률 용어 자체도 "여성의 성에 대한 남성의 권리"로 읽힐 여지가 있음.

-배꼽 (연상) 논의
<김길중> omphalos 사용 부분 근엄하기도 하고 비웃는 인상도
<남기헌> omphalos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
<전은경> 소재치고 too obscene
<남기헌> 당시 위생학적으로 종자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실제 한 사람 있었음. Sir Francis Galton같은?
<홍덕선> 19세기 위생학 대두
<김길중> 나치의 전사 생산 위해서 배우자 찾는다는 광고에 담긴 끔찍한 사고방식임. 생리와 우생학적으로 농담처리. 인간애 부족한 채 지식을 술안주 감으로
<전은경> 당시 나치의 우월성이 퍼진 사회적 분위기
<강서정> 인간 청소 작업의 일환. 유태인 뿐 아니라 자국 내 부랑자, 노인, 병자, 장애인 처형. 나치에 반대하는 백장미파 대학생도 없앰.
<김석> 히틀러 자신은 우생학 믿으면서 미국 과학을?.
<전은경> 히틀러의 유태인 혐오증이 어머니와 유대인 남자간의 통정 알게 되는 데서 생겼다고 함. 우생학은 당시 전후 떠돌던 설임.
<김길중> 멀리간에게 씌우고 즐기는지 미안해하는지? 동물을 우생학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요즘에 사람/동물 구별 조이스의 동물 일부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종교적인 고뇌도 조이스 머리에 떠올랐을 듯. 인간애에 대해 처연한 느낌. 음담패설을 대하는 조이스의 태도 엿보임.
<전은경> 사람을 과학적으로 동물 취급하는 것에 대한 반대

<김길중> 문제를 그리 보고 단지 표현만 직설적이지 않음. absurd, 지구의 근원 지구를 생체로 인식했기에 omphalos도 존재 가능. 그렇다면 음담패설로만 보지는 않는 쪽. 그저 생식의 기관으로 비천하게 처리하려는 의도와는 구별됨.
<전은경> 배꼽을 불경스럽게 처리
<홍덕선> 그림 『비너스의 탄생』에서 배꼽이 없는 의미.
<강서정> 자체 태어났기에
<홍덕선> 배꼽은 인간적인 결함의 표시
<김길중> *U* 3장에서 배꼽 없는 Eve 언급. 이교도 생각을 기독교적인 해석에 사용한 듯.

－<김상욱> 로마 군단에 소속된 군사는 성적 강인함의 상징? 709행 eletionibus centurionum Romanorum
<전은경> 로마 군대와 강함의 연결성 712행 the farmyard drake and duck
<남기헌> 암수의 언급 forest glade 장소 따라 다름. Donald Duck은 manly woman? / 715행 the sudden whimsy of the atmosphere 멀리간의 라틴어직후에 비 얘기가 갑자기?
<김경숙, 김석, 최희재> 비를 맞아서 손수건 모자 700행에서 물기 닦고 있었음.

－실존 인물의 형상화 방식
<김길중> Dixon은 실제 의사 이름?
<남기헌> 조이스가 치료 받았다고 함.
<김석> 실존 인물 걸고 소송 걸지는 않았는지
<김길중, 전은경, 홍덕선> Hades 장에 나오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일도 못하고 병원에 간 그 노동자에게 돈 집어주고 맒. 실제 조이스의 친구 이야기. 구두쇠 아버지가 소송 걸었음. 물에 빠진 아들이 죽지는 않았음.
<최희재> 참수형 집행하는 이발사로 그려진 벤 외교관도(*U* Aeolus장) label 소송했었음.
<전은경> 서로 옆집 사정 다 아는 더블린 속사정
<남기헌> 데니스 브린 소송 이야기도 그럴 법함.
<김길중> 조이스가 어렵게 써서 다행. 실존 인물이 당했다고 아는 데에 시간이

좀 걸렸을 테니.
<전은경> 2004년 블룸스데이에 당시 복장하고 더블린에 온 사람들 말이, 조이스 책을 다 읽지는 않았다고.
<홍덕선> 재미있고 특징적인 장면 정도 읽고 들었을 것임. 우리나라 『토지』 전체 다 안 읽고도 몇 대목은 기억하듯이.
<전은경> 예수의 마지막 장면 연상에 공감.
<남기헌, 김경숙> 1장에서 Mother Grogen 나왔음. story-teller 이야기꾼 역할.
<김길중> 733행 뚱뚱한 배 놀림 There's a belly that never bore a bastard. 불경하게 해석, 예수의 성령잉태 설 부인하던 Mulligan, Joseph the joiner (not carpenter)라 했으니 예수가 bastard가 된 됨.
<남기헌> 시적으로 운율 맞춘 효과 belly-bore-bastard
<전은경> 세기별 문체 18세기 애디슨 스틸 (중세부터 시작해서)에 이름.
<최희재> 이 장의 전환점 323쪽 천둥 친 부분 지났음.

제58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502호
일시: 2008. 7. 19. (토) 오후 2:00-5:45
독회진행자: 김석
정리자: 손승희
범위: *Ulysses*, Chapter 14 "Oxen of the Sun," Lines 738~941
참석자: 홍덕선, 김길중, 이종일, 남기헌, 최석무, 박진훈, 이인기, 민태운, 김경숙, 김상욱, 송인영, 강서정, 김석, 손승희

〈발제〉

738행 이후로 술자리의 대화는 배논이 멀링거에서 만났다는 여자, 즉 블룸의

딸 밀리로 옮아가고(“*et mille compliments*” 746-7행) 배논은 밀리의 사진을 꺼내놓으며 그녀에 대한 자랑을 쏟아낸다(“that very picture which he had cherished ever since... ” 754-63행). 또 그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곧 피임도구를 구입할 계획임을 알리는데(776-8행), 여기서 그가 언급하는 “a clock of the French fashion” (777행)는 린치가 말하는 “one umbrella... no bigger than a fairy mushroom”(785-6행)과 함께 본 문단이 서사의 스타일적 측면에서 흉내 내며 또 동시에 풍자하고 있는 로렌스 스턴의 작품에서 곧잘 활용되는 이중 화법(double entendre)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반복되는 여담의 출현(“But indeed, sir, I wander from the point...” 770행)이나 갑작스런 물리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야기가 중간에 끊기는 것(794-7행) 또한 스턴이 즐겨 쓰던 서사 기법이다. 하지만 본 문단은 스타일 모방・패러디라는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주제적 이슈 역시 던지고 있는데, 스턴이 자신의 작품세계를 통해 제기한 감성(sensibility), 혹은 감성주의(sentimentalism)라는 화두가 그것이다. 즉, 『감성 여행』(*A Sentimental Journey*)이 이상적 ‘감성 여행자’(sentimental traveller)의 필수 조건을 설명하며, “어두운 길에 접어들기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는 물론 훌륭하고 선한 사람이며 또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fit for a hundred things] 사람일지 모르나 이상적 감성 여행자[a good sentimental traveller]는 되지 못한다”고 말할 때, 이는 블룸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는 근 150년이라는 역사적/시대적 거리감과 (스턴의 탄생과 시기를 같이 한) 병원이라는 근대기관의 출현 및 발전 과정에 대한 사유를 전제로 하고, 또 이러한 역사, 시간적 거리감의 무게는 현 장에서 재언급되는 스티븐의 ‘sentimentalist’ 관련 정의(1030-1행)가 다시 한 번 – 하지만 스턴의 공간적 비유를 시간적 비유로 바꿔 – 일깨우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곧 이어 전해질 퓨어포이 부인의 출산 소식은 『트리스트람 샨디』[*Tristram Shandy*]의 도입부를 연상시킴.)

800행에서는 간호사 콜런이 등장해 딕슨에게 귓속말을 하고, 그때 잠시나마 분위기가 숙연해지지만 그녀가 자리를 뜨자마자 곧 의사와 간호사들 간의 부절적한 관계에 대한 외설성 잡담이 코스텔로와 린치 사이에 이어진다. 이에 딕슨은 불현듯 자신의 직업의식이 되살아난 듯 자리에서 일어나 퓨어포이 부인이 드디어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음을 알리고(820-3행) 의사와 간호사라는 성스런 소명을 모독한 두 남자를 준엄히 꾸짖으며 방 밖으로 걸음을 옮긴다(823-34행). 이어

지는 문단에서는 코스텔로의 음담패설로 말미암아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른 블룸이 퓨어포이 부인의 뒤늦은 출산 소식을 위안삼아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코스텔로가 블룸에게 불러일으키는 혐오감의 정도이다. 비록 화자의 언어에 의해 굴절, 변형되었다고는 하나, 코스텔로를 '잃어버린 고리'("a cropeared creature of a misshapen gibbosity, born out of wedlock and thrust like a crookback toothed and feet first into the world... that missing link of creation's chain" 855-8행)에 비유하는 블룸은 과연 당시의 관상학적, 아니 보다 정확히 우생학적 편견에서 얼마나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이는 『스티븐 히어로』에서 시골(Mullinger) 소작농의 얼굴 생김새를 몽고족에 비유하는 스티븐의 발언을 연상시키는 (물론 이 발언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삭제되고 말지만) 차별주의적 시각은 아닌가? 다시 강조하는 바이지만 이러한 해석은 화자의 서사적 개입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고, 또 어쩌면 저자 조이스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블룸이 얼마나 쉽게 주변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지를 이어지는 문단에서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인("this alien" 906행, "an exotic tree" 937행) 블룸이 과연 주변 인물들을 비난할 신분이나 처지에 있는가 하는 의문이 그것이고, ("It ill becomes him to preach that gospel" 928-9행), 자신의 이득(연리 4%의 정부 채권 소유)이 제국의 흥망성쇠와 불가분하게 연계된 그가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기꺼이 받아준 조국 아일랜드에 대해서는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911-3행)는 훈계조의 발언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문단은 키클롭스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블룸을 배은망덕하고, 위선적인 이방인이라 힐난함으로써 그에 대한 동정심을 독자들 사이에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토론〉

－sentimental 론

<이종일> "sentimental journey"는 흔히 옛 추억의 장소를 찾는 '감상여행'이라는 뜻인데...

<김석> 18세기 당대 '센티멘털'의 뜻은 감상주의 아니라 감성적이었음.

<홍덕선> sensibility와 같은 뜻

<김길중> 레이너 (-진선주-...) Sterne식으로 『율리시스』해석했을 법. '감성적'인 블

룸으로.
<이종일> 정자 등 언급된 내용도 Sterne 연상시킴 (*Tristram Shandy*)
<남기헌> 스턴도 조이스처럼 아일랜드 태생
<이종일> 앞서 밀리가 선물로 받은 모자를 758행에서 coquette cap으로 언급, 참고로 tucker는 목가리개임.
<김길중> artless－oxymoron의 예
<이종일> artless는 '순진한' 뜻으로 사용됨.

－<남기헌> 779행 무어인을 왜 the most accomplished traveller라 말하는가. 여기에서 무어인은 George Moore를 가리키는 지.
<김길중> Cape Horn 남아공 아래 지명, 영국 기지이니까 이상한 것 만들었나?
<김상욱> 비가 엄청 와서 우산으로 못 막는다는 대목에서 콘돔 연상됨.
<강서정> 거세에 대한 두려움이 드리워있던 12장, 13장 지나서 여기에 오면 정체성으로 보아 남성과 여성 사이를 오가는 성향, 앞부분에서 이어지는 변모의 과정을 블룸 통해서 그리고 있다고 보임. nationalism을 공식적으로 들고 나옴.

－<홍덕선> Cape Horn 다음의 ventre biche 의미?
<김길중> Cape Horn의 외양?
<이종일> 심하게 비가 오는 모습을 강조?
<김길중> Cape Horn의 지리적인 모습이 belly처럼 보이는 형상
<남기헌> cape는 망토, horn은 남성 성기 상징
<최석무> 의식적으로 불어 많이 사용, 일례로 French condom
<남기헌> 콘돔의 속어가 rain cape인 점에 착안.
<홍덕선, 최석무> Monsieur Poyntz의 언급? 콘돔 회사/상표 이름
<이종일> cloak는 콘돔 암시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비옷의 의미.

－<이종일> 791행 it는? 막연하지만 인간 본성을 언급한 것?
<김상욱, 남기헌> 성욕, 성기
<송인영, 김경숙> Milly 아니면 Lynch 여자 친구를 가리키는 듯.
<남기헌> 가끔은 성행위 말고 정말 비 이야기 같음. 비가 너무 와서 남자가 사망

한 예가 그러함.

－<김길중> 795행 tilbery 마차?
<홍덕선> 이두마차임.

－773행 seven showers에서 7의 의미
<손승희> 7일 내내 오는 비?
<이종일> 하루 만났는데 심하게 일곱 번 내린 비?
<김길중>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7일간 비가 왔는지.
<송인영> 40일간 내린 것으로 기억남.
<손승희 추가> 신화 자료에 나오는 (길가메쉬, 바빌론) 7일의 대홍수 기간을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도 적용한 측면도.

800행 간호사 Callan 등장, 잠시 숙연해진 분위기는 Costello와의 사이에 음담패설로 흘러감. 823-4행 Dixon 의사 훈계조로 신성 모독 분위기 준엄하게 비판. Goldsmith 문체 모방. 과격할 만큼 실험적인 문체 뒤에 평이한 문체가 오히려 허무하게 만든 효과, 더불어 여실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음. 블룸은 Purefoy 부인의 산고가 끝났음을 알고 안도함. **854-9행** 블룸에게 Costello가 어떻게 보이는가. 화자가 블룸의 생각을 전해주므로 굴절되어서 전해짐. 주먹이 폭력적이고 문제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 생김새로 평하는 관상학적인 당대 경향 보여줌. 어떻게 보면 조이스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humanism을 생각해보게 함. 조이스에게서 벗어나려고 애썼던 Beckett의 경우, 작품 속 등장인물은 신체 결함 있는 걸 보면.

－<이종일> 조이스 humanism의 이면이 있어서 생각해 보게 한다는 뜻?
<김석> 휴머니즘의 core가 있다는 생각은 Joyce에 국한된 것, Beckett에게는 그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ascendancy 론
<최석무> 개신교 사용의미 Ascendancy 암시? 861행 ascendancy 자신은 여기 병원에 있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착각? 블룸도 약점 있는 인간으로 간주됨.

<김석> 여기서는 신분 언급, 풍자적 사용.

<김상욱> 블룸의 행동방식과 관련된 표현 – wary ascendancy 신중하게 생각하다가

<강서정추가> 1. ascendancy에서 예이츠 연상: 예이츠가 추구했던 ascendancy는 계층적인 입장에서 뿐 아니라 문화적, 사상적, 생활 풍토적인 면에서의 ascendancy였고, 나레이터는 블룸의 사상적 철학적 입장이 태생적, 문화적인 고상함, 우월성에서 기인한다는 듯한 어감을 줌. 단순한 신분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당시 아일랜드의 문학적, 문화적 일부 동향을 단어 안에 새겨 넣음. 2. 본 장에서 작중 인물들이 모독하는 것은 모성과 생명 뿐 아니라 word 자체임: 모체와 word는 모두 "carrier"로서의 공통성을 갖으며, 무형의 것에서 유형을 창조한다는 공통성을 지님. "word"가 인간의 사상과 예술의 매체이며 "Word"의 성서적 신성을 유지한다고 할 때, 작중 인물들의 거칠고 저질스러운 언어는 창조의 매개체인 "word"를 모독한 것. 14장에서 문학사를 인간의 발생과 관련하여 병치시킨다고 할 때 "태양신의 황소"는 모체 및 모성임과 동시에 언어이기도 함.

<김길중> class 세력에서 우위인 protestant 상류층을 지칭하는 듯. 한편 블룸은 밀리 만나면서 개종, 이제는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천주교 신자임. 추상적으로 왜곡된 인성 아니라 생김새로 말하는 것 자체가 풍자 안의 이야기.

<남기헌> Punch Costello 관련→당시 잡지인 *Punch*에 유인원 많이 나옴. Irish Frankenstein 등 미개인으로 여기는 삽화 많았음. 영국 Darwinism에 비춰보면 영국은 진화된, 아일랜드 사람들은 미개한 종족 ... 여기에는 아이러니 작용.

<이종일> 블룸이 생김새로 이렇게 비판할 사람은 아닐 듯.

<김길중> 블룸의 생각이 있음, 화자 목소리에 담겨 비틀려 있지만.

<김경숙> 인종차별 입장 보임

<김석> 발달한 생물 종, *Stephen Hero*에서 소작농을 Mongolian type이라 부름, 그다지 정치적인 언급은 아니었던 것.

– <최석무> Costello가 말한 내용 중 무엇이 문제?

<김석> 818행부터는 Dixon이 이야기한 것. he는 Dixon

<김길중> 음담패설, 사람을 짐승처럼 말해서 스트레스 해소 충동도 있다고 함. 잘못하면 인간 모욕적으로 들릴 투를 사용함. 의사들 세계를 작가가 볼 때, 술 마

시고 못된 인상 부각하는 이상으로 조이스의 휴머니즘이 비집고 나옴. Milly 아픔 알고 있는 블룸... missing link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김상욱> 나이가 그 중 제일 많은 블룸은 음담패설 등에 나온 치기 이해함, 당신들은 젊으니까 그럴 수 있다 식.

<김길중> 861행 self를 '나로 말하면,'으로 보고 (being) a man of rare cast→자화자찬에서 벗어나 화자가 블룸을 너희들보다 낫다 식으로 드러내는 건 아닌지.

<남기헌> 코스텔로 실제 발이 먼저 나왔다 식은 아닐 듯.

<김길중, 홍덕선> *Henry IV*에 반역자는 태생부터 알아본다는 대목 있음.

<홍덕선> 찌그러진(=punch) Costello

<남기헌> 319쪽에 punch Costello 분명 언급.

<손승희> 김종건 번역에 '주먹'(주먹깨나 쓰는 인물) 코스텔로로 나옴.

<강서정> 창조론과는 반대 입장인 진화론, 인간 발생론을 말하면서 신격화 반대쪽.

<김상욱> 유인원과 인간사이의 매개 종 있는데 발견 못했다고 함.

<이종일> 그것이 missing link임.

<강서정> 발생학적으로 조이스같은 얼굴보다 블룸같은 얼굴이 앞선 면.

<이종일> 그러고 보니 영국 사람보다 아일랜드 사람 못생겨 보였음.

<최석무> 바람이 많은 날씨에 주목할 필요 있음. 아일랜드 사람들 화장 어려운 결과를 낳았다 봄.

<김석, 송인영, 김길중> 풍토 외에도 섭생 영양, 빈곤 문제 있을 듯.

–<이종일> 842행 which는?

<김석> 834행 Dixon 나갔으니 he=Costello 맞음

–<김경숙> 837행 nor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미상 or가 필요?

<남기헌> 그 이상을 받았을 것인데... 실제로는 부정적인 의미

<이종일> 디저트를 못 받았을 텐데

<손승희> 여기 desert는 공적, 상급의 의미로 반어적으로 제대로 당했다 로 보면 어떨지.

<김상욱> 음담패설 심한 Costello에게 더한 응징할 수도 있는데...

<손승희> nor를 or 와 not more than로 나눠서 생각하면 될 듯함.
<남기헌> or + 기껏해야 그 정도, 따라서 +not 가능함.
<홍덕선> 사죄를 하지 않았다면 징벌이 시행되었거나 응분의 대가를 받았을테니.
<김길중> 의미상으로는 or가 맞는데, nor 쓴 경우 있었다. 불어 que+ne 부정의미 없이 사용되기도 함.
<손승희> 일단 'nor'의 표현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임.

–<홍덕선> 808행 Gad's bud =oh my god

–<남기헌> 812행 seven months
<이종일> 만 7개월
<강서정> 아기 낳기 전 여러 과정. 7개월째 발생되었다. 아기가 뱃속에서 생길 때부터 7개월째
<송인영> Dixon 부분이 Goldsmith 부분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종일> 835행의 "repaired"는 Hugh Kenner가 만든 용어 'Uncle Charles Principle'과 관련해 Uncle Charles가 뒷간에 가는 것을 went라 하지 않고 그가 점잔 떨며 썼음직한 '행차하다' 정도의 뉘앙스에 해당하는 말로서 거론한 바로 그 어휘임.

–<송인영> 832행 뜻
<남기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송인영> sexual connotation 있다고 봐야 할까
<이종일> reject 단어 사용 봐서 맞음.

–<이종일> 818행 quick는 생살이란 뜻?
<홍덕선> as quick as
<김길중> swelling / quick as I
<손승희> 그냥 부사 의미로 quickly 가능함.

–<홍덕선> this pot of four 뜻?

<김길중> 스프, Gifford, 4인분 음식
<김경숙> 김종건 번역→4 페니짜리 술

〈발제 2〉 333쪽 880행 ~ 335쪽 941행

블룸이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함. **884행** 산고에서 해방되는 것이 기쁨. Purefoy 부인의 출산 고통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즉, 아기는 누구의 자식인가. 13장 블룸이 표적이 되었던 이야기이기도 함. **902행** 의학도들이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만은 아닌 듯. 환자/의사 이분법을 둔 근대 병원 체제와 연결시켜야 할 듯. 인성이 문제됨. **937행** an exotic tree로 지칭된 블룸이 제국의 흥망성쇠와 연결됨. 주변인물을 배은망덕하고 위선적인 인물이라 화자가 이야기. **918-19, 922행**, 집안 하녀 유혹한 경우도 **930-31행**. 아직도 자위행위 일삼고 있다는 등 인신공격으로 나감. 언행 불일치라고 매도. 유태인의 타자성 부각. 유태인은 주변사람들과 동화되지 못하는 특수성. 문제는 주변과 어울려 사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보는 눈길. 여전히 유태인을 타자로 남기고 있다는 것. 지젝이 "인문학자들도 주식투자를 하는 시대이다."고 했는데. 블룸 주식에 관여.

－블룸의 사업적 면모
<홍덕선> 당시 주식 시세?
<남기헌> 900 파운드면 큰돈?
<김길중> 송승철→조이스 공격하면서 business에의 관심을 비판. Marxist 비평가인 Terry Eaglton→*Ulysses* 출판 당시 책 서명하고 고가로 판매한 사실 문제시, 전혀 축재에 관심 없을 듯한 조이스인데?
<남기헌> 16장 "모든 것의 뒤에는 다 돈이 있다"는 작품 내 언급 있음.
<김길중> business를 불성실하게 탐구해서 돈 버는 쪽으로 실패한 것인지.
<남기헌> 잠깐 아일랜드 왔을 때, Dublin 극장 하나 해볼까 생각했던 조이스 실제 일화 있음.
<송인영> 엘만의 자서전→조이스가 로마에서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기계적인 삶이 싫어서 작가 생활로 복귀함.

－몸 담론
<김길중> 블룸의 사업적인 측면으로 연결한 의미?
<남기헌> 블룸이 900 파운드 캐나다 정부 주식, 이율 4%
의학도들 성 이야기, 해부 등 함께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아닐까?
<김길중> 위악스럽게 말하는 것, 위선을 뒤집어서 말하기도?
Richard Wright 세상은 흑인이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음. human gestation (728행) 이 작품 전체의 큰 metaphor이기도.
<이종일> 조이스 당대는 고귀한 인간성 떠들던 시대이니까, 인체를 갖고 자연스러운 행위나 감정을 말하는 것을 외설스럽게 받아들였을 만하지만, 조이스에게 있어서는 인체 또는 자연적 본능과 관련된 자연스러운 말임.
<김길중> 전체 역사의 진행을 gestation 인체와 몸 담론에 담아서 진행

－<송인영> 895-6행 a linkboy의 뜻?
<김석> 밤길 안내자
<남기헌> lamp lighter 옆에 따라 다니는 소년, the man in the gap이 원래 골 기퍼
<이종일> 12장 186행에도 나옴. gap은 협곡, military champion의 뜻.
<김길중> '적의 허점을 뚫고' 왕을 위해 복수해 주는 무사.

－<송인영> 898행 possessed by them 의미
<김상욱> them = medical students
<이종일> puer→purefoy
<김길중> 라틴어 puer=boy
<손승희> 성별 차이가 단어에 암시되었다면 혹 아들 출생을 예견하기라도.
<이종일> 성구별은 큰 의미 없을 듯.

－896행 singular의 연결
<송인영> 멀리간 등 Purefoy의 부도덕한 면 공격, 여기에서는 블룸만 혼자 singular
<남기헌> singular 뒤의 내용이 특이하다... 고 블룸이 생각
<이종일> faculty가 singular ... that이고 여기에서 communed=thought, said의 뜻.

<김길중> 영혼의 전전, 출생 따라 영혼이 움직임. faculty가 특수한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음.
<김석, 송인영, 남기헌> 의학도들이 학위 받고 나면 경박하게 농담을 즐기던 태도가 변하는 면 지칭.
<이종일> '윤회'는 작품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임. 이 장 전체에서 문체 변화로 뒷받침된 예.
<남기헌> 19세기 전 의사의 사회적 직위가 그리 높지 않았던 듯.
<김길중> 의사 병원의 근대성의 문제. 푸코의 이야기
<김석> 법, 의, 신학 등 이탈리아에서 대학 학부 처음부터 중요시되던 학문.
<김길중> 신, 치유자 등 역할, 능력은 천차만별, 제도로서는 18세기 들어와서.

–<남기헌> 934행 His marital breast 뜻?
<김석> 결혼한 남자의 가슴.
<김상욱, 김경숙> 다른 여자 밝힘, 하녀 유혹한 실례를 봐도 그렇고.

–<김경숙> 931행 향유(balm)의 뜻?
<남기헌> 농담조로 사용된 듯.
<박진훈> Gilead는 질병 치료와 관계. 사정이 죄라면 사해주는 효과도.
<김길중> master discharge (?)
<박진훈> 17장 1864행 주식 이야기 net personality: certificate of possession of £900, Canadian 4% (inscribed) government stock (free of stamp duty)
<김길중> 네덜란드 등 동인도 주식회사 세울 때 국경너머 헝가리 복권 사는 경우도 있었음.

–<이종일> Shamrock은 율리시스 9장 세익스피어 이론에 따라서 말장난 가능한 단어임: sham=false; rock=church.
<김길중>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가짜라는 뜻이 됨.

제59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502호
일시: 2008. 8. 23. (토) 오후 2:00-5:45
독회진행자: 김석
정리자: 손승희
범위: *Ulysses*, Chapter 14 "Oxen of the Sun," Lines 942~1109
참석자: 홍덕선, 김종건, 전은경, 이태수, 김길중, 길혜령, 김상욱, 김경숙, 이종일, 최희재, 이인기, 강서정, 정인경, 김석, 손승희

〈발제〉 335쪽 942행 ~ 337쪽 1037행

문단은 도입부인 942행에서 퓨어포이 부인의 출산 소식을 알리고 (문학적 태아 비유는 다음 문단 1026행, "his head appeared"이라는 표현으로 암시됨), 이에 아랑곳없이 경망스러운 잡담을 지속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들이 내뱉는 각종 출산 관련 합병증과 기형아 관련 이야기들은, 한편으로는 새 생명 앞에 가로놓인 아일랜드의 현실이 얼마나 참담한가를 수사적으로 암시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조이스는 에드워드 기번(Gibbon)의 문체를 패러디한 이 문단을 통해 자신의 잡다한 의학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듯 보인다. 앞 장들에서 오간 등장인물들 간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6장 하데스에서 언급된 사무엘 차일즈(Samuel Childs)의 형제 살인 사건(958행)과 6장과 9장에서 언급된바 있는 경가극 *The Geisha*에 대한 인유("chinless Chinamen" 963행)가 특히 눈에 띄이는 대목이다. 특히 그 중 차일즈 관련 언급은 다음에 이어지는 문단(1017행)에서도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19세기 말 고딕 소설 (특히, Horace Walpole의 *The Castle of Otranto*) 스타일을 흉내 내고 있는 이 두 번째 문단은 그 형식에 걸맞게 멀리간의 괴기담으로 시작해 헤인즈의 환영 등장으로 이어지고 끝부분에서는 Anglo-Irish 고딕소설 작가인 Sheridan Le Fanu의 작품 *The House by the Churchyard*에 대한 인유를 스티븐이 앞서 행했던 감상주의("The sentimentalist..." 1030-1행) 및 세익

스피어("himself the ghost of his own father" 1033-4행) 관련 언급과 뒤섞어 끝을 맺고 있다.

앞선 두 문단이 술자리에 배석한 젊은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어지는 다음 문맥은 그 스타일상 찰스 램(Charles Lamb)의 문체를 흉내 내며 이야기의 중심에 블룸을 위치시키고 있다. 멀리간의 이야기에서 야기된 자못 섬뜩하고도 초자연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듯, 블룸은 자신의 유년기에 대한 회상에 빠져드는데 책가방을 어깨에 멘 고등학생 시절, 그리고 졸업 후 가업을 이어받아 행상인으로 나설 때의 모습이 차례로 그의 뇌리를 스쳐지나간다. 회상 장면은 잠시 후 브라이디 켈리(Bridie Kelly)라는 매춘부와 가졌던 블룸의 짧은 첫 성경험 추억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 모든 회상 장면은 아들/상속자 없는 그의 현재 모습으로 어김없이 되돌아와 끝을 맺고 있다. 다양하고도 변화무쌍한 주인공 블룸의 상념이 갑작스런 현실의 돌출로 말미암아 중도에 끊겨버리고 마는 것은 물론 이 문단에 국한된 예외적 현상은 아니며 텍스트 전반에 나타나는 반복적 특성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토마스 드 퀸시(de Quincey)의 몽환적인 분위기로 대치되는 다음 문단은 마사와 밀리("Martha... Milly" 1101행)의 이름을 전면에 드러냄으로써 블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본질적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있다. 즉, 왜 블룸은 아들이라는 존재에 대해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그토록 부권/부성을 부정하는 스티븐에 블룸을 대조시킴으로써 과연 조이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발제 내용〉

이 장 전체가 그렇듯이 이 부분은 조이스가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작가들에 대한 지식이 중요함. 퓨어포이 부인의 출산 소식이 수사적으로 과장된 형태로 전해지고 있음. 앞 장에서도 수사적 과장이 보였는데 이어짐. 내용상 아이의 출생과 같이 태아의 성장이 함께 그려짐. 예: **1026행** he has appeared 나오는 부분 임신 7개월째 상황. 출산 관련 산과 문제와 기형아 등에 관한 나열. 자리에 모여 술 마시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무신경에 얹혀 태어날 아이의 어두운 미래가 비쳐지기도. 하데스 장에서 958행, 경가극 (6, 9장)

기번의 문체 패러디 문단에 이어 **1017**행에서 보듯이 고딕 소설 문체 모방하고

있는 문단이 나옴. **1027행** 마텔로 탑에 가는 차를 타기 위해 맞춰짐. 멀리간의 이야기는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음. 그래서 오히려 고딕 소설의 분위기를 자아냄. **1044-47행** 2장의 수수께끼 형식으로 던져진 의문. 화자가 말하는 부분으로 헤인즈의 이야기와 연관된 서사 장치일 수도 있겠음.

〈토론〉

–<김길중> 1034행 For this relief much thanks~ 헤인즈가 할법한 말이라도 조이스가 이렇게

<김석> 멀리간과 헤인즈의 이야기 내용 구분 어려웠음. 1015행 I anticipated ... history is to blame. 이건 헤인즈인데 어디부터 멀리간?

<전은경> 화자가 전체를 조정?

–<홍덕선> 1016행 Yes, it is true는 누구 목소리?

<김상욱> 영국과 아일랜드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형제 살인 모티브를 동원해서 식민지 문제 건드림. His real name was~ 헤인즈 말 통해서 영국 사람들 의식에 남은 죄의식 드러남.

<김길중> 헤인즈의 등장은 말했을 법한 정도로

<이종일> 멀리간이 유령이야기처럼 이야기. 이야기 속의 헤인즈 언급은 337쪽 1024행 창문과 머리의 언급. 멀리간의 상상 속 이야기와 실제 병원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섞여있음.

–<강서정> 1030행 센티멘탈리스트의 범위가 모호함. 영국 내 국한 혹은 아일랜드에서 찾아야?

<김석> '센티멘탈리스트'에 역사의 부채의식 없이 즐긴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듯.

<김길중> 원래는 오스카 와일드 이용한 스티븐의 말이었음 (*U* 9장), 현실과 역사의 대결의식일지는 보통 사람들 두고 내려다보면서 말하는 스티븐의 태도 (물론 본인 제외는 아님)를 보면 다분히 부정적인 국면.

–<전은경> 헤인즈가 실제 나타났는지 여부 불분명
<김경숙> 헤인즈 실제 등장 아니고 멀리간 이야기 속에서 나옴. 자기 얘기를 눈에 보이듯 조정하고 있음.
<이종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한 말은 실제임.
<김길중, 전은경> 1장에서 만남의 약속이 있었음. 유령 모티브는 분명함.
<전은경> 고딕 분위기가 전제로 된.
<이종일> 악몽 경험한 헤인즈와 연관해서 공포 이야기 나온 건데, 식민자의 식민지 개발 기여는 잊고 비난만 한다는 제국주의국가 영국과 식민국가인 아일랜드의 관계가 겉으로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실체는 동일한 존재라는, 스티븐의 이체동질론(consubstantiality)에 대한 패러디. 갈등을 빚지만 한 형제간. 덕택에 좋은 시간 보냈다는 대목은 Bloom이 Gerty에게 속으로 하는 말(13장 939행)에 대한 패러디임. 갈등 그러나 한 형제간. Childs를 이름으로 택한 것도 이 장의 아이(태아) 모티브와 연결.
<김상욱> 재판 결과 무죄
<전은경> 동생이 현장에 있어서 범인으로 지목되었으나 확증 없어서 살인범으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함.
<이종일> Samuel Childs가 Thomas Childs
<김길중> 이름이 Childs, 사정이 연상됨, 형제간 반목-영국과 아일랜드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호한 정황 (결국 무죄 판결), 출생에 대한 신성 모독. 유아살해.
<강서정> 아일랜드의 내분을 의미할 가능성도 있음. 당시 나라 안의 분열 움직임을 통합해 보려는 사회적 배경 감안하면 문화나 논하는 것은 감상주의적 태도라는 뜻으로 읽힘.
<김종건> 955행 블룸이 저지하려고 하지만 in vain (1023행) // 오디세이외에는 태양신의 황소를 잡아먹자고 하다가 하늘의 벼락 맞음과 평행관계 있음.
<김길중> 지나치니까 막는데 작가의 코멘트라 보임.

–<이종일> 심장 이야기 car~ 337쪽 첫줄? 녹음에 없는 부분?
<김길중> the의 언급, 986행 a *prima facie* those swineheaded
<김석> 판별 녹음도 다른 부분 있음

–<김종건> 비정상적인 분만 종류 18개, 조이스가 쓸 때 낙태에 관한 이야기 사전 두고 쓴 듯.

<전은경> 조이스 아이 가졌을 때 동생 스타니슬라스에게 부탁해서 책도 보내달라고 하고 태아 연구 많이 했다 함.

<김종건> 336쪽 991행 An outlandish delegate=블룸, 유태인이라서 outlandish로 표현.

1007-8행 상복 입은 것 언급. 문체 특징상 고딕, 내용 무시무시한 것이 특징. 동사 두 개라든지 문장 내 단어 뒤죽박죽인 것이 예. 아일랜드의 켈틱 문학에 나오는 단어들 많음.

<김길중> 창에 히스클리프 나타난 등 고딕 소설 이야기 nation을 person으로 본 조이스의 태도는 분명한 듯.

<김종건> 337쪽 위에도 헤인즈 이야기 게일어 전공 (전은경-켈트민속연구)

<김길중> 친아일랜드 성향인 헤인즈와 조이스는 다름. 그저 개인적으로 싫은 것만이 아니라 두려운 이미지 나옴.

<이종일> 조이스와 스티븐 구별해서 볼 필요 있음. 예술관과 인생관 뿐 아니라 헤인즈로 대표되는 영국과 스티븐으로 대표되는 아일랜드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김길중> 내가 모르는 나의 공포 이미지가 조이스 안에 있었을 것임.

<김종건> 고딕 귀신 이야기 1014행 history is to blame. 1016행 which?

–<이종일> 1008-9행의 언급. 붙인 채로 나둬야 which=reception

<김종건> 자기가 냉대 받고 있다는 개인적인 의미로 사용됨. 2장은 민족적으로 처리했으나 다름.

<강서정> 헤인즈가 하는 이 이야기는 마치 태어나는 아기가 하는 말로도 들림. 역사로 인 해 제대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아기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병원에서 나누는 이야기의 많은 부분들이 역사로 인한 피해의식 및 부채감 등과 관련된 것. 아기가 받을 세례명 역시 피 식민지 겹겹의 역사를 안고 있음.

<김종건> 1020행 tramping Dublin... my share of songs Gil 서점에 가서 더글러스 하이드의 책 구하러 갔다. 헤인즈가 언제 더블린 다녔나? 337쪽 1022행 Erse는 게일어 가리킴.

–<김종건> I=헤인즈의 의식의 흐름 속에 섞인 이야기, he=narrator.
<김길중> 의식에 비친 것 아닌지
<이종일> he와 I 혼란스럽지는 않음. 1014행 헤인즈 말 시작됨~열 줄 정도 검은 표범 언급하는 데까지. 그 다음에는 화자 목소리로 감.
<김종건> 독재주의자들을 아편으로 몰아감. 아편으로 정신착란 상태가 되는 것이 희망이다 식. 1028 Westland Row 언급 처음 나옴.
<전은경> 음유시인 이름
<김종건> A. Russell (시인), John Eglenton 7장 오몰로이 이야기인데 sage로 번복됨? 스티븐이 멀리간에게 친 전보=메리디스 구절 이용. lonely house by the graveyard 등 헤인즈 이야기 속 언급된 단어는 파누라는 켈틱 작가의 작품에서 따옴.
<길혜령추가> 1028행 the dissipated host (G. Moore를 지칭), the seer, the sage등의 언급은 같은 시간 AE Russell의 집에 게일릭 문학청년들이 모여 있음을 환기. Anglo-Irish를 중심으로 한 (Literary) Revival과 영국인 Haines의 Gaelic 언어나 문학에 대한 관심은 다 같이 현재가 아닌 이미 죽어 박제가 된 아일랜드에 대한 관심으로서, 고딕소설의 유령으로 표현하기에 적합.
<최희재> Ship에서 못 만난다고 전보침. 검은 표범 헤인즈의 꿈 속에 나온... 불안감
<전은경> 헤인즈의 실제 모델이 나중에 자살한 옥스퍼드 학생임.
<김길중> 마텔로 탑에서 실제로 총 난사
<최희재> 누구의 유령?
<이종일> 1017행을 근거로 Samuel Childs임.
<김종건> 1075행 보초 교대해 줘서 고맙다.
<이종일> 13장 939-40행 햄릿-블룸 인용; the solitude 외진 곳 Lockwood가 황야 desolation에서 잘 지낼 만한 사람으로 Heathcliff 봄.
<김석> 원출전이 와일드인데 스티븐이 인용한 것인지?
<김길중> 그러함.

–<홍덕선> Clongowes에 민담 등 과목이 개설되었는지
<김길중> 아마 아니었을 것. 전통 끊긴 맥락에서, 학교 커리큘럼에 게일어도 없었

을텐데 더구나 학교 제도권 속에서는 넣기 힘들었을 것임.

<강서정> 당대 문화적 민족주의의 일환에서 내세우는 켈트 문학이 병원에서 술취한 남성들이 나누는 음담패설과 병치되는 듯한 인상을 줌. 음담패설과 켈트 문학 모두 고통의 역사로 인한 부담감에서 일시적인 해방감을 얻기 위한 마약과 같은 것. 조이스는 문화적 민족주의에 대해 조금은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듯함.

<이태수> 켈틱 문학과 통한다? 기형아 설명하는 부분 언청이, 다지증 등 설명은 누가 한 것?

<전은경, 홍덕선> 화자가 묘사한 것, 하는 얘기를 화자가 전한 것 맞음.

<이태수> 블룸이 설명하는 방식도 있음. 스코트랜드 사람? 발언권은 멀리간에게 넘어감, 동시에 매든과 리치가 여러 cases 논의하고 블룸이 답을~ 1010행

<이종일> 조심스럽게 한 셈.

<김길중> 내용 상술

<김상욱> 인간과 동물의 이종교배 가능?

<이태수> 신화 내용의 일부로서 나오고 그것이 유일 증거임. 비정상아에 대한 설명 어떤 내용일까?

<최희재> 돼지머리 아이 등 아이를 낳을 때 위험성... 화자가 말하고... 너나없이 이야기함.

<강서정> 돼지코를 한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있었음. [기록자 첨가 – 『페넬로페』]

<이종일> 개처럼 체모가 있는 증상도 소개됨.

<이태수> 마찬가지 방식으로 나오는 것임. 다음 사람은 다른 가설로 설명하는 식임. *G*에 의하면, metaphysical... 스코틀랜드 식 18세기 토마스 레이드의 생각 출생시 세계에 대한 기본 지식 갖추고 나온다 식. 경험주의자만도 아닌 전통. 성장정지 증상도. 미노타우루스 정도의 예만 들 뿐.

<이종일> theosophy

<김길중> 정확하게 말한다, 그건 또 맞는 것이냐 식의 의문 제시

<이태수> 멀리간답게 a nice clean old man?

<김종건> 아일랜드 신화에서 신랑감 기준, 멀리간의 음담패설기가 들어있음.

<김경숙> 신랑 아니라 신부감?

<이태수> 깨끗한 중년 남자를 상대로 하면... 이렇게 나오지. 술안주 정도감.
<김종건> 블룸의 입장은 변신 등 희랍신화 지지 338쪽 변신 의 이미지, 블룸의 의식
<김경숙> 블룸이 막상 가장 심한 이야기를 언급

–<최희재> Delegate니 Candidate라는 명칭을 왜 사람들 이름 앞에 붙였을까.
<이태수> 궁중 직책의 하나인 candidate
<최희재> 어쩌면 들고 나오는 입장들 (잘못 된 탄생 등등에 대한)에 대한 대표라는 뜻으로 썼을 수도.
<이종일> canvass는 블룸의 실제 직업

–<홍덕선> 고딕 성당에 변신과 관련된 동물 모습 많이 있음. 성스러움의 반대편 악의 대표격, 한편으로 희랍 신화 토대로 인간의 상상력으로 가시적인 세계 너머... 중세 우주관에 서는 꼭 신의 반대편만은 아닌 양상임.
<김길중> 그로테스크의 존재 의미–성화 그리던 화가가 슬쩍 넣음.
<홍덕선> 움베르트 에코의 소설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음.
<손승희> 브라우닝의 시 “Fra Lippo Lippi”에서 그림 그리던 화가가 제 생각을 슬며시 그림에 넣는 대목이 연상됨.
<김상욱> 그로테스크는 불행이나 악에서 보호하는 국면도 있음.
<홍덕선> 중세 icon의 유래가 그렇듯이.

〈발제2〉 337쪽 1037행 ~ 338쪽 1109행

블룸의 과거와 현재 **1062-4행** 부자 모티브 부각, 현재 아들이 없는 블룸이 과거 성 경험에 대한 낭만적인 회고로 연결. 1073-4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시간이 돼서 사라지고 soul에 대한 언급이 두 번째로, 이번에는 블룸의 영혼 이야기가 아닌, 모호하고 형이상학적인 형태로 드러남. 전에 이어서 토마스 드 퀸시의 몽환적인 문체 모방하는 부분. 블룸이 꿈꿨던 아겐다스 네타임 **1086행**. **1101행**에서 천상의 이미지와 겹쳐짐. 멀리간의 고딕 분위기 1096행에서는 현재로 돌아와서 **1107행** after a myriad metamorphoses 블룸의 상상이 현재로 왔다는 암시로 보임. 작품 전

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아들에게 집착하는 아버지 모티프 942행 heir가 출생했다 조이스의 천재성을 받은 Lucia Rudy 죽음 때문에 아들 그리는 정도가 심하다는 생각도 듦. **1060행** 현재 모습을 반추하는 But hey, presto, the mirror is breathed on **1044행** a mirror within a mirror 과거 자신 모습 보다가 다시 뿌옇게 사라지면서 현재로 돌아옴.－1932년 조이스의 시 아버지 사망과 손자 출생의 시기 겹침. －young life is breathed on the glass 설명

〈토론〉

<김종건> 현재와 환영의 경계

<이종일> 1039행 인간 영혼의 나이－윤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인 듯. 현재 모습이 영혼의 한 거울인 셈.

<이태수> 일반적인 인간, 특정한 인간의 나이가 아니라 아님, 조상부터 후손까지 하나로 보아 던진 통념 나이보다 많다 식,

<김종건> 철학적인 질문.

<이태수> 왜 오디세우스 아니라 텔레마코스로 시작해서 페넬로프에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 라이티오스를 만나고 작품 마무리되는 부분이 시사함. 영혼의 아이덴티티를 의식한 듯.

<김종건> 338쪽 1074행 sunnygolden

<김길중> 아들과 딸

<이태수> 탄생에 관한 이야기, 태아 생성의 과정 너머의 이야기

－블룸 왜 루디에 집착하는가

<이종일> 죽은 자식이 아들 루디가 아니라 밀리였어도 블룸이 똑같이 애통해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 생각해볼 필요 있음. 상징적인 차원에서는 아들의 상실이 호머 평행의 견지에서 부자관계의 이상(異常) 상태이자 종교의 부성(paternity) 이론에 대한 우회적 문제 제기가 됨. 그러나 실생활의 차원에서 블룸이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음.

<김길중> heir라는 단어 자체도 남자 상속인을 지칭.

<길혜령> 블룸이 아일랜드 신화의 군주라는 이미지에 중점을 두면, 군주로서의

자격은 용감한 전사가 아니라 신성과 관계가 있거나 heir가 있어야 됨.

<이종일> 세익스피어 이론 설파하면서 스티븐은 부자관계의 모호함을 역설.

<최희재> 블룸은 아들, 딸을 구별하지 않을 사람. 아들 루디가 아니라 딸 밀리가 죽었더라도 마찬가지로 집착했을 것임. 그러나 그럴 경우 '노시카'장에서 거티를 보고 블룸이 자위하는 장면은 딸 같은 여자와 근친상간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끔찍한 장면으로 변할 것임.

<김종건> 블룸의 아들에 대한 생각은 신중한 면 있음

<길혜령> 아이가 약하면 아버지 탓이다 식의 자책의 동기가 있는 듯함. "If it's [the baby is healthy it's from the mother. If not from the man" (*U* 6.329)

<김길중> 거울 이미지 – Hardy 시, 남 보듯이 나를 보는 것, 역사적인 연결

<손승희 추가> Yeats의 역사관 반영된 시 "Among School Children"에서도 아이에게서 미래와 조상을 보고 있음.

<이태수> 거울 속의 거울→인간역사의 나이

<강서정> 거울이 블룸의 자아를 비춘다는 점에서 거울 속에 블룸과 여성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블룸 내면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상징하는 듯한 인상을 줌. "her age"에서 "her"는 "soul"을 받기에 여성형이지만, 한편으로는 남성(블룸) 자신을 나타낼 수도 있음. 1100행에서 여성들이 성모 승천 장면을 패러디하여 그려짐으로써 성과 속이 뒤섞임은 물론, 초월 의지도 내비침. 13장에서 나타난 창녀와 성모의 대비되는 이미지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이스의 책략일 뿐 아니라 블룸 자신의 인식 양상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

<최희재, 이태수> soul은 여성 대명사로 받음.

<이태수> 명사의 성구별은 오늘날과 달랐을 것.

<김길중> psyche를 여자로 형상화하는 예도 있음.

<김종건> Charles Lambs과 그 뒤에 나오는 De Quincy의 산문시 아편 – 술취함과 연관.

<김길중> 원형을 염두에 둔... 삭막한 세상의 쉽지 않은 여행 비유

<강서정> 1070행 the willer with the willed의 뜻?

<김상욱> 성행위의 상호성

<김종건> 1045행 a retrospective arrangement, mirror within mirror *Hamlet*의 play within play

<전은경> 1038행부터 윤회 속에서 진화하는 영혼 이야기, 삶의 과정 속에서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이 축적된 상태, 다음 문단 338쪽 1078행부터 soul의 travelling으로 보임.

<이종일> travelling이 자주 언급되는 모티브임.

<강서정> 영혼의 mood에 따라 나이가 달라짐. 소년 시절 거울 보는 모습을 상상함. 영혼의 나이가 retrospective라면 지금은 어떤 상태의 영혼일까.

<이태수> 지나온 mood가 축적된 영혼?

<강서정> 잘난 시절의 회상

<김종건> 단 도슨의 노래 신문에서 평한 말 retrospective arrangement, 이것은 회상적인 편곡으로 번역했음. 블룸의 어린 시절 중간 등

<김길중> 따온 단어의 무거운 unpoetic한 느낌을 조롱조로 재인용한 경우도 있음. 아전인 수격 역사 왜곡, 자기 합리화로 가득.

<이종일> 시간적으로 과거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는데, 『율리시스』에서 시간전이(time-shift)가 심하다는 점에서 자기지칭적(self-referential)인 어휘라고 할 수 있음.

<이태수> 오디세이 작품의 주제가 귀환임.

<최희재> 15장이 회고(retrospective arrangement)의 최고점이라 볼 수 있음.

<김종건> 회고적인 연속, 짜임 mirror within mirror = frame within frame 연극 속의 이야기인데 둘 다 이야기, 즉 연속된 시간의 이야기로 보임.

<이태수> 여행의 종착지가 return home

<길혜령> 학도들의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활기에 의해 젊어진 블룸, 영국인 헤인즈와 Anglo-Irish의 비관적인 분위기와 대조적인 분위기임.

<전은경> arrangement one soul인데 『초상』현실과의 조우 통해 형태 바꾸는 one soul이 여러 bodies

<강서정추가> mirror within a mirror는 마주보는 두 거울을 연상시킴. 거울이 마주보고 있을 때 수없는 이미지들의 반향이 생김. 이는 한 개인의 의식을 파고드는 것이 얼마나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것인지를 일깨워줌. 블룸이 지금 과거를 향해 의식을 탐험하지만, 블룸이 탐험하는 과거의 의식은 미래를 향한다는 점에서 마주보는 거울 이미지가 성립. 거울을 바라보는 소년 블룸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 것.

<김길중> 옛날 아이 지금 아이, 소의 이미지를 넣어서 이야기 반추=거울

–<이종일> 1055행 the heart?
<김종건> 속셈의 뜻
<김상욱>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물건을 팔지.
<이종일, 김경숙> 마음이 나한테 있나 뜻함.
<김종건> 1063행 The wise father knows his own child. *The Merchant of Venice Ulysses*의 사실주의 예. 더블린 레너헌이 어느 지점에서 멈춰 돌아오는 이유도 지리적으로 실제 벽이 있어서 돌아가야 할 길목이 막아서임.
<이종일> 서양 사람들에게 할아버지 이름을 따 손자 이름을 짓는 일이 흔하긴 하지만 Rudy(Rudolph의 nickname)의 이름이 블룸의 아버지 이름인 Rudolph와 동일하다는 것은 의미심장. 1078-9행 what Leopold was for Rudolph

–<최희재> 1071행 Nay, fair reader. 삽입의 의미
<이종일> Charles Lambs 흉내낸 부분. 1072행 In terror the poor girl 이전에 연예진도가 끝까지 나간 것 아닌 듯(^^).
<최희재> 무서워서 도망간 의미, 첫여성 혹은 창녀와?
<이종일> 장 제목(태양신의 황소)과 연관해서 모든 남성의 여성이어야, 빛의 신부가 아니라 어둠의 신부, 밤의 딸... 대를 잇는 위치가 아니라 빛과 어둠의 대조적 이미지 병치 1074행 Name and memory
<김상욱> 사생아 가리켜서 여성으로서 덮어써야 할 오명을 의미? 여기에서 어둠은 홍등가?
<김석> 그렇다면 더블린 대학교 바로 옆에 창녀촌? 비 오는데 사람 지나는 소리 들었다는 언급으로 보아 가까운 거리일텐데?
<최희재> 야경꾼의 발소리 듣고 무서워서 도망간 것임. 12장에서도 블룸이 어슬렁거리는 창녀를 주목하는 장면이 있음. 그때도 자신의 창녀와의 경험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함. 그리고 지금의 회고와도 연결이 됨.
<김길중,이종일> 이야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과 맞아떨어짐. 길거리에서 돌다가 nightwatch
<김상욱> 창녀로 단정할 수 없음.

<이태수> bride of night 해석? 어둠의 신부 다른 함의는 없을는지
<길혜령> hold back 누가 한 말인가?
<최희재> 블룸과 여자가 한 말 아니면 다 여자가 한 말
<이태수> 남자가 말할 수도 있음.
<길혜령> It must not be는 watch가 한 말일 수도.
<김경숙> 화자의 목소리로→ 했을 리가 없어.
<길혜령> 금방 와서 손전등을 비출 거라는 말?
<김석> 성적인 황홀한 경험 언급
<이종일> 성행위 후 빛이 세상을 덮는 의미
<길혜령> 블룸 말 중에도 "carnal intercourse had been incomplete, without ejaculation of semen within the natural female organ" 있음 (*U* 17.2282-84).
<이태수> unclear 문장 순서와 일의 순서가 불일치 가능
<김길중> heart to heart, allusive parody
<이종일> 여자 편에서 물러섰다는 뜻.

–<최희재> 메템**사이**코시스 발음
<이종일> 사전에 '메템**사이**코시스'와 '메템**시**코시스'의 두 가지 발음이 다 나와 있어서 Clive Hart 교수에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사이**–"가 맞다고 확언하였음.
<이태수> 흔히 '메템**시**코시스'로 발음

제60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9동 424호
일시: 2008. 10. 18. (토) 오후 2:00-4:00
(*4:00-5:00 이태수 교수 특별강연: Homer의 *Odyssey*)
독회진행자: 김석

정리자: 손승희
범위: *Ulysses*, Chapter 14 "Oxen of the Sun," Lines 1110~1173
참석자: 홍덕선, 김종건, 김길중, 이태수, 전은경, 이종일, 민태운, 유두선, 박진훈, 이인기, 최희재, 송인영, 김상욱, 강서정, 김석, 손승희

〈발제〉 338쪽 1110 ~ 340쪽 1173행

앞선 두 문단에서 이어진 블룸의 회상에 영향을 받기라도 한 듯 코스텔로는 스티븐에게 클롱고우즈(Clongowes)에서의 학창시절을 상기시키며 옛 학우들의 근황을 물어보는데 (1110-1행 "He asked about Glaucon, Alcibiades, Pisistratus"), 이중 첫 번째 인물 글라우콘은 당시 플라톤의 형제라고 여겨졌기에 아마도 스티븐의 동생 모리스를 칭하는 듯 싶고, 후자 두 명은, 본 문단이 문체에 있어 패러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월터 랜도어[Walter Savage Landor]의 *Imaginary Conversations*에 등장하는 고대 그리스 정치가로서 본 대화의 문맥에서는 학창시절 스티븐의 친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패러디적인 요소 때문인지 본 문단에서는 고대 그리스 인물과 전설에 대한 언급이 빈번히 등장한다. 바로 뒤따르는 질문, "Where were they now?" 역시 *ubi sunt* 라는 오래된 문학 모티프를 부각시키고 있다. 스티븐은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해 소멸된 과거를 되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시인인 자신뿐이라고 말하는데("You have spoken of the past and its phantoms... I, Bous Stephanoumenos, bullockbefriending bard, am lord and giver of their life." 1112-6행), 하지만 린치가 스티븐이 이제까지 만들어낸 창작물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초라할 뿐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또 연이어 레너헌이 스티븐의 죽은 모친을 언급하자 스티븐이 보였던 종전의 자신감은 이내 절망감으로 돌변하고 만다.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것은 골드컵 경주에 대한 대화인데, 레너헌은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셉터(Scepter)가 혹마 쓰로우어웨이(Throwaway)에게 아깝게 승리를 내주게 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1129-33행). 특히 셉터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며 세월의 흐름을 한탄하는 장면(1140-41행)에서는 위에 언급된 ubi sent 모티브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켜주고 있다. 이어서 린치는 경마장(the field)에서 자신과 자신의 여자친구 (매춘부 Kittie Ricketts) 사이에 있었던 일(1133-1150행),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콘미 신부(Fr Conmee)를 만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한다(1155-7행). (앞서 “Wandering Rocks” 199-202행에서는 콘미 신부가 두 연인을 그리 좋게 보지 않았다는 사실 상기할 필요 있음) 문단 말미에는 상념에 잠겨있는 블룸의 모습이 부각되고, 신지학(theosophy)에 관한 멀리간과 스티븐의 대화가 이어진다.

[앞의 두 문단에서는 블룸의 회상이 이어졌는데, 그 영향을 받기라도 한 듯 스티븐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이어짐. 스티븐 동생의 안부를 묻는 것은 아닌지. 문체를 패러디하는 대상. where were they now? -서구 문학에서 오래된 ubi sunt 의 모티브 부각하는 것 같음. **1115행**의 대답은 당당했으나 레너헌의 얘기 뒤로 좌절감으로 변함. 경마에서 승부를 내 준 말 Throwaway scepter 우승마 바뀐 경위 불확실 **1140-1행** 다시 Ubi Sunt 부각. 경마장에 갔다 오는 길에 콘미 신부 만남. **199-202행** (10장 184쪽)과 달리 여기서는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려짐. 멀리간이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는 블룸의 모습을 보임. 이미 유년기 회상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이 다음 문단에서 밝혀짐.]

〈토론〉

- <김종건> 338쪽 1088행 upupa 시체를 파먹는 새라는 조이스의 신조어라고 알려짐. 슈왈츠는 FW 단어처럼 5가지로 분석 u.p. up papa(자식없음) utopia upa (번데기) woopou(시체먹는 새) 등 거의 부정적인 의미 함축된 coinage. 11장 Siopold(simon+leopold) 예처럼 분석됨.

<최희재> 주석에는 중세 때 새 이름 정도로만 나옴

<김종건> agenda(낙원) sunless 여기서는 황무지를 sonless에서 연상하고 있음.

<이종일> The Wasteland를 황무지로 번역하는데, 한자 茂는 잡초가 번성한 내용의 글자이니, 황지가 어떨까 싶은데 실제로 황지는 잘 안 쓰이는 단어

<홍덕선> 蕪 무성한 뜻과 없다는 뜻의 연결

<김길중> 질서 없음 결국 같은 뜻에서 나온 두 한자 아닐까

<김종건> 여인의 푹 꺼진 음부라는 앞의 단어처럼 sunken의 뜻 연결된 것 같음. 337쪽 1108행 currents 성단 Taurus는 이것의 일종 신화에서 별의 한 가운데 삼각형 표시가 있음. 맥주병 삼각형 빨간 딱지 보고 불룸의 아버지 생각해 냄.

1100-1109행 이런 이미지들 모여 있음. Taurus는 연보라색 밀리나 마서의 Icy의 속옷 색깔 Heliot *Joyce and the Colors* 서명 (확인) 1101행 Martha, Millicent 등 /m/

<이태수> 그리스어 배우면서 교과서에 언급되는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 것임. 실제 대화편에 나오는 사람은 Pisistratus 한 명뿐 소크라테스 애인이 Alcibiades

<전은경> 소크라테스와 악처 부인 관계가 생각남.

<최희재, 민태운> 제자와 스승, 연인관계, 상호 관계라기보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홍덕선> 그리스어로 Bous Stephanoumenos의 정확한 의미

<이태수> 소 + 화관을 씌우다

<김길중> 희생되는 소

<김종건> 스티븐 놀리던 장면 순교자 스테반 이름 따서 스티븐 놀리려 나옴.

<김길중, 이태수> 시인으로서 관 쓴 영예와 희생되는 소의 관 쓴 모습 겹쳐짐

<이태수> -phorus는 carrying, bearing

–<김종건> 338쪽 콘미 학교 학생들이 역사적인 위인이 된 상황. 언급된 피시스트라투스 예

<이태수> 아테네 유명한 참주의 이름이 피시스트라투스임.

–<이종일> Where are they now에서 과거에서 'now' 가능?

<손승희> 과거시제에서 now=then 가능

<김길중> " " 없이 가능?

<이태수> 그 때 그 시점, 그리스어 시제 학생들이 배울 때 방편으로 사용?

<김길중, 민태운, 최희재> 조이스 친구 이름 실명 땄을 것임.

–<김길중> Scepter와 Throwaway

<이태수> scepter를 던져서 throwaway하는 예도 있었으니

<박진훈> 영국 왕의 홀 상징하는 Scepter가 아일랜드 상징인 Throwaway에게 오히려 throwaway 당하는 격임

<최희재> 클롱고우스 학교의 교장 이름 실명 콘미
<이종일> 5장에도 나오는 콘미 filly 암망아지 1133행에서 Phyllis 이름 나왔을 수도.
<민태운> 1140행 말

–<김석> 1130행 휠리스는 누구의 여자 친구인지 모름
<김종건> 린치의 애인, 원래는 목가 시에 나오는 처녀도 가만히 못 있었을 거다. 그런데 자기 애인은 ... 이런 식의 해석 가능.
<최희재> 앞에서 콘미 걸어가던 10장에서 창녀라는 인상은 못 받았음.
<김상욱> 경마가 승부가 박빙이라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던 관중의 이름이 필리스. 목가적 시의 화자 비슷함.
<김석> 1128행 He told them of the race.에서 he는 레너헌
<최희재> 1134행 her lover consoled her에서 her lover는 따로 나오는 린치
경마장 다녀오다가 콘미 신부 만남. 콘미가 만난 애인과 일치함.
<김길중> 전달된 시간과 런던과 더블린의 거리
<최희재> 3시 5분에 나온 콘미가 걸어가고 기차타고 가다가 3-4시 사이에 만났을 법함.
<전은경> 이름 없이 나오는 젊은이 만남.
<김상욱> O. Madden up. 의 뜻
<이종일> O. Madden을 태우고 일어섬. 기수 이름
<김석, 손승희> 경마 배경이 영국 런던임을 상기.

–<김종건> 『율리시스』 쓰기 전 Vincent가 더 큰 작품 쓰라고 비꼼. 1120행 the work=*Ulysses*이고, 신화는 다이달로스 지칭한다는 생각.
<이종일> 그렇게 보기에는 스티븐이 너무 어리지 않은지
<김석> 338쪽 troop 유령 전조 1091행 they come trooping to the sunken sea 스티븐이 화자는 아니지만 곧 글을 쓰게 될 전조
<이종일> 여기서 휠리스 눈물 딱 한 방울–"The Boarding House"의 Polly 많이 울지 않고 사업(?)에 동참하는 인물 연상
<민태운> capful=light 예술가 스티븐을 깔보는 인상

<김길중> 노래 시시껄렁하게 하고 돈 받아가는 인상
<최희재> 불러낸다는 이야기 다이달로스 신화 얘기하는 부분
<김길중> 나의 시심을 불러내는 old father
<이태수> 아버지의 혼 정도 불러내는 것 이상으로 예술혼 부름
<김석> 스티븐의 천재성을 아버지라 부름 ode
<김길중> light odes (1119행)는 oxymoron
<민태운> 셰익스피어론에서 아버지 언급하는 부분 연상. 자신이 자기 아버지가 되는 셈.
<이태수> genius father 있는 문장의 주어는?
<김종건> 천재의 아버지, something이 천재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식. 아버지=다이달러스
<이종일> 천재를 아버지라 부름
<최희재> something이 주어 those leaves 가리키는 지.
<이태수> 화관의 잎, 꽃만 아니어도 머리에 두르는 관 총칭, vine leaves로 관 쓴 인물은 디오니수스, 실제 술 만드는 포도는 식용보다 알 크기가 작은 포도임.
<강서정> 현재 입장에서 과거의 유령 불러내는 인상
<민태운> 지금 어디 있냐 하면서 과거 생각하는 양상과 일치
<김길중> 하계에 내려간 오디세우스가 유령을 살려서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되는 단계
<이태수> 과거 죽은 사람들 다 불러내서 말하게 하기 위해 희생된 짐승 피(여기서는 시인)를 언급. 오디세우스가 하계로 갔다는 설과, 지구 끝에서 짐승 피 먹게 해서 땅에서 솟게 했다는 두 전승 있음.
<최희재> 1121행 의미
<김석> 디오니소스도 하계 가서 어머니 데리고 오는 전설 내용. 신으로서 하계 간 유일한 경우일 듯.

–<이종일> 자식 없어도 고아 orphan?
<이태수> 어머니 떠나서 고아 될 수 없다 식?
<김길중> 어머니=고아
<김상욱> leaves mother alone

<박진훈> orphan의 사전적인 의미 중 잊혀진 존재라는 뜻이 아닐까..
<이태수> Vincent, Lenehan
<이종일> 주변에서 기대 자자했는데 ... 엄마의 기대도 저버리지 않은 친구... 스티븐의 양심의 가책 건드림, <김종건> 동의
<김석, 이종일, 이태수> 죽은 사람 중 어머니도 있음.
<이종일> 1111행 He는 Francis Costello

–<유두선> light odes→ "Chamber music" 당시 평가는?
<김종건> 무시하는 혹은 발랄한 작품이라는 평가의 양면
<유두선> 과거를 불러내는 epic, "Araby"에서처럼 장르를 패러디하는 의미를 린치가 평가 못하고 대작을 쓰라 하는 건지?
<민태운> 『율리시스』에서 스티븐이 유망한 젊은 예술가들의 선집에서 조차 제외되는 걸 보면 등 예술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됨.
<홍덕선, 김길중, 김종건> 통틀어서 chamber part의 music
<손승희> Joyce의 시집 *Chamber Music*(1907) <추가> 조이스는 Ibsen의 희곡 *When We Dead Awaken*에 관한 평론으로 1900년 *Fortnightly Review*에 등단했는데, 이 무렵 서정시를 쓰기도 했다고 함. 이렇게 해서 1907년에 출판된 조이스의 시 모음 *Chamber Music*은 조이스의 소설 *Dubliners*(1914),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1916), *Ulysses*(1922)이나 희곡 *Exiles*(1918)보다 먼저 세상에 나왔음.

제61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9동 424호
일시: 2008. 12. 20. (토) 오후 2:00-5:30
독회진행자: 김석
정리자: 손승희

범위: *Ulysses*, Chapter 14 “Oxen of the Sun,” Lines 1174~1390
참석자: 김종건, 김길중, 남기헌, 이종일, 전은경, 송인영, 정인경, 이인기, 이태수, 강서정, 최석무, 김경숙, 박진훈, 김상욱, 김석, 손승희

〈발제〉 340쪽 1174 ~ 341쪽 1222행

1173행으로 끝나는 전 문단 말미에서 혼자 먼 상념에 젖어있는 듯한 블룸의 모습(“His soul is far away” 1165행)이 멀리간과 스티븐 사이에 신지학(theosophy)에 관한 추상적인 토론을 촉발시켰다면, 이어지는 문단은 그러한 블룸의 모습이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잠시 유년기 회상에 잠겨있었던 블룸은 이미 지난 몇 분간 눈앞에 놓인 술병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동시에 자신이 근래 행한 ‘사업거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recollecting two or three private transactions of his own” 1189행). ‘지금, 여기’(“here and now” 1223행)에서 벗어나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블룸이 아닌,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유아와 같은”(“as the babe unborn” 1190행) 멀리간과 스티븐인 것이다. 화자는 블룸과 두 젊은이의 이러한 대비를 “anybody that conjectured the contrary [about Bloom’s present state] would have found themselves in the wrong shop”(1179-81행)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즉 “private transaction”이라는 블룸의 사업 관련 비유의 연장선상에 배치시킴으로써 블룸의 현실중심적 사고가 지니는 상대적 우위성, 내지 중요성에 한 표를 던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리고 이는 1197행 이하 이어지는 두 번째 문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The high hall of Horne's house”(1201행)에서 주연을 벌이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자못 위엄 있고, 지역적・신분적 아우라마저 띠는 것처럼 보이지만(“Crotthers... in his striking Highland garb” 1204-05행, “seated in stolid repose the squat form of Madden” 1209행, “the figure of Bannon in explorer’s kit of tweed shorts and salted cowhide brogues contrasted sharply with the primrose elegance and townbred manners of Malachi” 1210-13행 등),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아일랜드 출신 왕실 사진사 제임스 라파예에 대한 언급(“the inspiring pencil of Lafayette” 1221행)은 이러한 외견 묘사가 실은 사진술로 대표되는 근대과학기술에 의해서야 비로소 가능해진 근대적 시각・인식의 산물임을 환기시켜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화자/블룸의 현실중심적 시각과 대비해 신지

학이라는 전근대적 담론에 심취한 스티븐과 멀리간을 그저 20세기 초 아일랜드의 지식인들을 유혹하고 옭죈 현실도피주의의 또 다른 유형이라 폄하하기는 힘들다. 조이스는 바로 그와 같은 시대 담론적 유행을 활용함으로써 그 특유의 '백과사전적 언어'("a language so encyclopaedic" 1203행)를 창출해내고 있고, 또 이와 함께 2-3세기경 알렉산드리아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지학의 발원과 당시 동서양의 문화적 수렴이 지닌 세계사적 의의를 독자들로 하여금 반추해보도록 만듦으로써 ("copies to be sent if you died to all the great libraries of the world, including Alexandria" 3장, 141-3행) 조이스 자신의 문학이 표방하는 세계주의적 지향성을 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물론 이는 두 문단이, 문단의 문체적 측면에서 흉내 내고 있는 영국 역사학자이자 에세이스트 토마스 맥컬리(Macaulay)에 대한 단순한 패러디 이상의 의미를 획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토론〉

–<김석> 1191행 both their eyes met (누구 눈길이 만난 걸까?)→레너헌과 블룸인지 스티븐과 블룸인지 더 이상 술 못 마시게 하는 눈 마주침.
<김경숙> 344쪽 1356행 맞은편 얼굴이 레너헌이라 보임
<남기헌> 의도적 조우라는 점 배제하고 읽으면 레너헌이라 생각됨.
<전은경> 여기서 young poet은 스티븐 지칭.

–<이종일> 바니 키어넌 주점의 사건을 가리키는지 몰리의 저녁 사건인지 voluptuousness는 Gerty 부분의 언급?
<김석> 몰리의 사진?
<이종일> 머릿속에 남은 이미지를 거티로 보기엔 너무 강한 듯함.
<송인영> 블룸이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몰리 가슴 사진 있음.
<김석> 예수의 마지막 만찬의 패러디로 해석되는 부분임.
<전은경> 사진인지 가슴 속 이미지인지,
<송인영> 사진 인화 후 펜으로 섬세하게 수정하는 경우
<남기헌> 촬영 후 선명하게 선을 그렸던 경우임.
<김상욱> 근대 사진술 나오기 전 1870년대 음판 사진 intaglio(?) dagulartype(?)

<남기헌> 교황 피오 10세가 사진술이 하느님의 영광 밝힌다는 시각에서 시 쓴 것이 *D*의 "Grace"에 있음.
<김석> 지갑을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인지. 그래서 가슴 언급. heart
<남기헌> 바지 주머니는 아닐 듯함. 거기에 넣어갖고 다니는 것이 따로 있으니까.

–<김종건> 지금 참석하는 사람 모두 몇 명?
<박진훈> 9명 참석 중.
<김종건> 이름 빠진 사람?
<남기헌> 레너헌임, 9란 숫자의 의미는?
<이종일> 태중 9달?
<전은경> 조이스 형제가 9명?
<손승희> 9천사?
<김종건> 예수 제자 만찬 자리 참석인원은 몇 명?
<박진훈> 12 제자임.

–<송인영> 349쪽 11명 언급은 무슨 의미?
<이종일, 남기헌> 매켄토시? 밴텀 라이언즈가 뒤에 나오기도?
<김종건> 나중에 11명 되는데 두 명은 밴텀과 매켄토시임.
<이종일> 1546행 mackintosh
<김종건> 레너헌 숙부가 순영국산인 Bass 맥주 제조업자. Scepter가 삼촌 말임.

–<남기헌> 1161행 poor luck with Bass's mare
<김종건> 1213행 본래 긴 이름인 고가티 이름, 유명한 의사였음. 조이스에게 밉보였을 뿐. 조이스의 필체에 눌려서 의학으로 돌아섰다는, 원래 작가 지망생이었다 함.
<남기헌> St John Gogarty

–<이종일> 1202-3행 assen ly so representative→*Ulysses* 자체 가리키는 듯.
<김종건> 어렵게 쓴 문체 모방, 막상 주어-동사 조화로운 연결에는 문제없음. 여러 사람 문체를 섞으면서 패러디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발제 2〉 341쪽 1223행 ~ 343쪽 1309행

19세기 대표적 영국 생물학자이자 올더스 헉슬리의 조부인 토마스 헉슬리의 스타일을 패러디하고 있는 다음 문단은 패러디 대상에 걸맞게 과학이라는 주제를 글의 내용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화자는 스티븐이 토로하는 초월론적인 우주관(“perverted transcendentalism” 1224행)이 기존 자연과학이 정립한 논리적 이론과 공약 불가(incommensurable)하다고 힐난하지만 동시에 블룸이 제기한 두 질문, 즉 태아의 성별을 결정짓는 생물발생적 요소(“the future determination of sex” 1231행)나 유아 사망(“infant mortality” 1240-41행)의 정확한 원인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한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 또한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문단 내 이어지는 나머지 긴 부분은 블룸이 던진 이 두 질문에 대해 멀리간과 크로더스, 린치 등의 등장인물들이 연달아 내뱉는 장황한, 하지만 결코 과학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답변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러한 파편적 사이비과학지식의 열거는 과학맹신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과학이라는 이론역시 시대에 따라 그 체계가 변형된다는 토마스 쿤의 주장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본 문단의 핵심은 무엇보다 1286행에서 1293행으로 이어지는 스티븐의 발언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앞선 신성모독적인 발언들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라 불리는 잡식스런 존재(“an omnivorous being” 1287행)는 나이든 인간남녀뿐만 아니라 이따금씩 신생아 같은 조촐한 스낵(“an innocent collation of staggering bob” 1292행, “the cookable and eatable flesh of a calf newly dropped from its mother” 1298-99행)도 곁들여 섭취한다고 힘주어 비꼬는데, 이 발언은 조나단 스위프트의 대표적 풍자 에세이 “A Modest Proposal”을 연상시킴으로써 아일랜드의 참담한 피식민지적 역사 유산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나 “the survival of the fittest”(1285행) 같은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 다윈주의적 개념은 우생학적 관점에서 아일랜드인을 열등한 종족으로 차별화해 멸시한 당대 영국의 인종차별적 제국 이데올로기의 긴 그림자를 상기시킨다.

→ Herbert Spencer의 우생학적 관점에서 아일랜드 인종 차별한 정책을 비판하는 것임. Stephen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지위를 부가시킨 점이 재미있음. 멀리간(Hyg. et Eug. Doc) 1243행 doctor인 멀리간과 달리 bachelor 당시 문학 수학 박사학위 인정되었을는지.

〈토론〉

–<남기헌> 당시 Lynch 같은 생각 있었을지 증명 안 됨.
<이태수> 예컨대 수학으로 모든 걸 설명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여기서는 지나친 경우.
<이종일> 음악이 수학으로 설명된다 식?
<이태수> 음악을 가장 수학적인 현상으로 설명했음. seven arts 중 대수 쪽 연결된 것이 음악, 기하학적으로 연결된 것이 천문학이라 보았음.

–<김석> 1273행 중간부터는 Still~ 누구 이야기일까?
<이태수> 계속 린치의 말이라 보임.

–<김경숙> 341쪽 1232행 the postmenstrual period는 왜 들어갔을까?
<김상욱> 가임기간 이야기?
<이태수> 가임기간이 당연히 맞음.

–<남기헌> pre/post의 구별
<김경숙> 아기가 생기는 기간을 왼/오른 난소로 연결?
<이태수> 장소가 아니라 시기가 결정한다는 것. 어차피 엉터리 이론인 걸.
<전은경> 조이스가 의학 공부한 흔적이 아는 체하는 데에서 나옴.
<이태수> 의학 공부 섞어서 엠페도클레스 등 패러디함.
<전은경> 자기 딸 가졌을 때 달마다 태아 성장에 호기심 가졌던 것이 사실, 인체에 대한 조이스의 관심이 각별했던 듯함.
<김종건> Emerson 주장한 초절주의(Transcendentalism)에 조이스가 경도되었던 것 같음.
9장 Oversoul (대영(大靈)) 언급. 미국 가부좌 틀고 명상 모임 보았던 것 인상적임. 인도식 불교에 들어온 초절주의 흔적이라 보임.
<전은경> theosophy (신정학) 19세기 지식인층간에 나왔던 철학, 지금 19세기 문체 배경.
<이태수> 경험적인 것을 넘어서 지식의 최종적인 근거를 초월적인 것에서 찾음.

칸트 등 과학적 지식의 근거가 경험 아니라 이성 쪽에서 찾은 것도 일종의 초월주의적 (진지한 해석)에서부터 신비주의 등 오관 사용 않고 인도식 명상하는 것까지 속칭 과학적 근거 없으면서~ 과학과 대비한 것. 실증주의가 나오면서 경험 넘어선 인식 가능성 나오고 진보적인 지식인이라면 초월주의 벗어나자 주장하던 세기. 특히 영국에서 17-18세기 지칭.

<남기헌> 토마스 헉슬리가 대표적인 사람.

–<김종건> to be or not to be만 아니라 1276행 in the poet's words, give us pause, 여기에서 pause가 세익스피어의 glossary allusion이기도 함. 조이스의 지식은 세익스피어를 능가한다고도 함. *FW*에서 세익스피어shoemaker 등 무시하는 분위기를 이끎.

<남기헌> concordance glossary

<김종건> 세익스피어 어휘는 약 20000 자 조이스의 *FW* 60000 자; 소가 많이 나오는 장 ox, cattle, cow, bob, 율리시스 전체에도 나옴. 영국 나무 울타리와 달리 아일랜드 돌로 경계. 소가 너무 많아서 발정기 되기 전, 즉 3 살 전에 도살한다고.

<이종일> 말도 많이 나옴.

<남기헌> 아일랜드를 암퇘지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웃음)

<손승희 추가> *P* 5장에서 Stephen이 Davin에게 한 말 "Ireland is the old sow that eats her farrow."

–<이태수> 영국 학자들 흉내 중 1258행 Disc. Bacc. 번역은? 박카스의 제자?

<박진훈> 토론 학자.

<김석> 1303행 F.K.Q.C.P.I. (주석서 읽음-*G* 내용)

–<강서정>God과 god(예술가), 신과 예술가가 함께 가는 것과, 인간도 소문자 신으로서 Oversoul을 나눠가짐. 이기심을 버리면 soul의 영성회복 가능. 자연의 법칙. 현대 과학으로 설명되고 있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언급, 블룸은 과학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윤회설 믿는 중간적 입장에 서있음이 드러남.

<이태수> 불경한 사람들도 사이비인 걸 보면, 조이스가 한 발 담그고 있으면서도

초월주의에 끌리고 있다고 생각됨.

<전은경> 과학(경험)주의와 초월주의쪽을 두고.

<이태수> 과학쪽도 패러디되고 있음. 외설스럽지만, 애 가질 때 관한 이야기 과학적으로 설명된다 해도 신비한 것임.

<이종일> let her cat... disclose the truth 엉뚱한 숙어 활용이라 보이지만 일맥상통함.(1238행)

<강서정> egotism 버려야 oversoul이라는데, 여기서 블룸이 스티븐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듯함.

<남기헌> 유태인 남자아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자기 아들 생각에 한해서 블룸의 관심사 언급함.

-<김종건> 어려운 문체 342쪽 하단 번역 어려웠음. 1285행 Mr S. Dedalus' remark~두 줄 더까지 한 문장, 주어와 동사? might find 343쪽 reveals가 동사 ~한 스티븐의 말은 ...한다. 대신 스티븐의 말, 즉, that 이하 설명.

<이종일> staggering bob - 갓난 송아지

<김종건> 1299행 블룸이 매력 갖고 있는 송아지가 staggering bob → a calf newly dropped from its mother; 뚱뚱보 신사나 황달병 걸린 수녀 등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 2장에서 Deasy 소 검역 이야기 나올 때 (?) (아무소나 먹어치우는데...) - 소와 관계가 있을 듯. → staggering bob가 핵임. 위에 gastric relief 안도감을 준다는 스티븐의 말은 343쪽 1292행 unsavory 불미스러운 관점이긴 하지만 스티븐이 자기 말의 경향은 충분히 드러낸다는 말.

<이종일> 이런 사람들을 먹는다는 (네 가지 예) 잡식성 동물은 특히 갓 태어난 송아지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될 거라는 스티븐의 말이 reveal 한다 식. 갓출산한 채로 먹는다?

<김석> 병원에서 죽은 사람만 먹다가 병원 신생아 먹으면 신(omnibus being) 의 입장에서 좋겠다 식인지

<이태수> elements의 예들임.

<김종건> 여자가 고양이를

<이태수> tendency가 바로 앞 문장에 나온 tendency (1292행)

<김종건> 적자생존의 경향임.

<남기헌> 1281행 끝의 tend to와 연결된 부분, 초기에 사라지는 이유. 신이 그동안 먹은 것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유아 먹는 것임.
<이태수> 신처럼 적자생존의 추진하는 뒤의 힘.
<김경숙> 1299행 생명 경외 아니라 경시되는 결과.
<김상욱> 땅=무덤 omnibus
<김길중> swallow 다음 뜻. 불어/라틴어 문법 식 imperturbability 1288행 ?pluterperfect → ineluctable
<이태수> plusquampuace ? Cancer의 형용사형으로 보임(이종일 질문에 답함)
<김길중> 단어에 문법이 굴절된 것.
<남기헌> 신을 연상하게 함.
<강서정> 다윈주의가 사회적 다윈주의로 연결되는데, 피해 식민지에서 담담하게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이러니.
<김석> 지적 담론이니까 가능함.

〈발제 3: 343쪽 1310행 ~ 344쪽 1390행〉

다음 이어지는 4개의 짧은 문단은 각기 찰스 디킨스, 존 뉴먼, 월터 페이터, 그리고 존 러스킨의 문체를 차례대로 흉내 내고 있는데, 네 문인이 현대 영어산문문학 특히 조이스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 디킨스의 경우 영국 소설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중작가이자 도시 문학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뉴먼은 UCD의 창립자이자 조이스가 가장 뛰어난 영어 산문가라고 간주한 문필가라는 점에서, 그리고 페이터와 러스킨은 조이스가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 뛰어넘어야 했던 영문학의 최근 거봉이라는 점에서 – 각별한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특히 페이터의 영향은 「죽은 사람들」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 같은 조이스의 전작에서 뚜렷이 확인될 수 있는데, 『율리시스』 본 장은 그러한 지배적 영향력조차 영문학사라는 긴 거시적 관점에서는 지극히 지엽적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으며, 비평가 제임슨(F. Jameson)의 지적대로 이제 조이스가 그러한 세대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영문학계의 맞수는 비평가 블룸(H. Bloom)의 말마따나 셰익스피어뿐일지 모른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장의 주제와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언어의 '육

화'("But as before the lightning... so and not otherwise was the transformation, violent and instantaneous, upon the utterance of the word" 1383-90행)라는 사건이 퓨어포이 아기 분만소식("a happy accouchement" 1311행) 위에 아로새겨지면서 본 장의 핵심 주제인 태아의 육적·상징적 성장이라는 이중 모티브가 완결되는 것이 이 지점이며, 블룸이 면모를 입은 스티븐의 어릴 적 모습("A lad of four or five in linseywoolsey" 1371행)을 회상함으로써 텍스트 내 상징적 아들의 역할을 담당하는 스티븐이 양털 모 코르셋("fair corselet of lamb's wool" 269행)을 걸친 루디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아기 예수의 강탄("a crib in Bethlehem of Juda long ago" 1383행)과 겹쳐 연계되는 것 역시 바로 이 지점이다.

〈토론〉

- 1383행. 아직 토마스 카알라일 남아있는 상태임 (345쪽 Burke's!로 시작됨) Peacock Ruskin에게서 산문 성장 일단락 지었다면, 왜 시기상 Carlyle을 뒤에 놓고? 말의 발화를 어떻게 연관 짓고 있는지

<김길중> 말의 발화 포함 예고한다고 보임. 말의 violence 연관됨.

<김종건> 다소 쉬워진 문체로 느껴짐. might의 뜻 중. 8장 mighty cheese (강력한 치즈?) 1336행 Cronion Cronun과 Cronon의 합성어로 Cronos는 time 뜻, 추수의 신의 이름. 시의적절하게 아버지가 아이를 잘 낳았다. Cronion has dealt lightly (잘, 쾌활하게) 1337행 here와 연결해서 읽고 번역했음. let no sigh break?

- <강서정> 탄생 이야기하는 장에 죽음에 관한 언급 나오는 점 어떻게 해석할지

<김종건> Joyce의 coinage에 이중적 개념

<최석무> 이 장에서 아이 출생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아버지 나이가 많으므로 등도 굽은 상태에서 한숨 쉬고 있는 어머니 위로하고 있는 상태, 출생이 적절하기보다 때늦은 감 있음.(344쪽 old 단어의 반복적 사용) 남자가 감리교, Ulster bank에 다닌다. 양심적이라고 말하면서도 함께 주는 정보에 의심쩍은 (1331행) 보어 전쟁 영웅 이름 따서 지었다 식 등등을 볼 때 탄생의 기쁨과 더불어 부정적으로 보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 보임.

<김종건> 아이 출생을 긍정적으로 읽고자 함.

<최석무> 1330행 하필 영국여왕 따라 아들 이름 작명 (아버지 정치 성향)
<김석> 데이빗 카퍼필드의 첫아내인 Dora가 데이빗을 Doady라 부르는데, 유산 후 사망하는 인물인 점에서 유추해보면 부정적인 의미 있음.

–<송인영> 누구의 죄라고 밝히고 있는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죄인지?
<전은경> sin과 memory 연결된 부분
<송인영> 죄는 바로 위의 man, Purefoy
<김석> Newman 설교에 나오듯 일반인이 일차적인 언급이나 when ~ 자연스럽게 퓨어 포이 쪽으로 넘어감.
<강서정> Abide there wait... the end of the ~ 성서의 인유 연결됨. sin은 역사적인 것까지 들어감.
<김상욱> 원죄 이야기
<남기헌> Newman 설교풍
<김석, 남기헌> Mark this farther and remember→Hamlet, Stephen 도서관 장면.

–<손승희>앞에서 father에 r 붙어서 farther에 새 의미?
<김석> stepfarther로 사용되는 단어 용례 있음.
<강서정> 역사적인 어둠과 죄의식을 종교적인 의미에서 연결, 아이의 탄생
<김상욱> 출생과 원죄 연결?
<손승희> 어머니가 아이 낳는 자체가 원죄의 산물임.
<김석> 1391행 birth와 Burke's의 발음 비슷함에 착안함.
<김경숙> 출산을 남성스럽게 1370행 주변, fight, brave 등 언급
<최석무> 불가능한 출산을 해냈다, 남자처럼 나왔다는 뜻이 아닐는지.
<남기헌> 1342행 played loyally your man's part
<김석> 남편 없이 혼자 남편 몫까지 해냈다는 의미
<이종일>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사이에 삽입된 부분? 1338행, He knows and will call in~, 아내는 당연히 직접 수고, 남편 당신도 애 썼어 라고 말함. 다음 줄에서 객쩍은 남편
<강서정> 식민지에서 구원해줄 구세주를 구했으나 스스로 낮추어서 세상을 구원. Purefoy라는 아기 이름이 구세주 예수와는 동떨어진 이를테면 독립운동가의 자

식이 친일파 이름을 받는다는 게 재미있음.
<김상욱> Purefoy 애가 이미 많다. 부인은 첫째부인이었을 것.
<남기헌> Purefoy라는 이름도 영국식은 아닌 듯.
<손승희> fois 같은 불어식?
<김길중> fois의 뜻은?
<손승희> faith (mauvais fois에서처럼)
<강서정> Mortimer 실명? 혹시 죽음+시간?
<김길중> 죽음과 연결된 인물명일 수도? Shakespeare의 사극 등장인물 중 하나 없을지
<이종일> 1338행 seasoned briar 연초 연관된 부분?

-<김상욱> Doady, knock the ashes form your pipe, 누가 한 말?
<이종일> 아내가 남편에게, 화자가 부인 입장 대변한 듯.
<김상욱> 화자든 의사든 대변자가 있음. 의사나 간호사와 악수하는 정도로 sir 사용?
<이태수> those who have passed on (조상) 이쪽 따라가면 인류의 조상→신까지 이를수도. 죄진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용서하고... 하느님? Sir?
<이종일> sir 는 큰 존경어 아닐 때도 씀.
<강서정> well done에의 대응으로→하느님 당신 손에 맡깁니다.
<이인기>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는 성경 귀절.
<이태수> Father Cronion=god
<김길중> 생명의 불꽃, 재만 남고, 연초를 태워서 생명의 꽃이 핀 상태 아닐까?
<남기헌> Purefoy 부부 나이는 어느 정도? 젊다고 생각하지만 죽을 때 받아놓은 애 아버지 정도.
<김길중> father Cronos와 의미가 닿아있음.

제62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9동 424호
일시: 2009. 1. 17. (토) 오후 2:00-5:45
독회진행자: 김석
정리자: 손승희
범위: *Ulysses*, Chapter 14 "Oxen of the Sun," Lines 1390~1591(끝)
참석자: 김종건, 김길중, 윤희환, 홍덕선, 전은경, 박진훈, 최석무, 이인기, 정인경, 송인영, 강서정, 김경숙, 길혜령, 남기헌, 이종일, 김상욱, 김석, 손승희

〈발제〉 345쪽 1390행 ~ 346쪽 1464

비평가 리처드 비검(R. Begam)은 3장 '프로테우스'에 등장하는 "Ineluctable modality of the visible"(iii.1)이라는 표현에서 단어 ineluctable의 어원(*in*/negation +ex/*out of* +luctor, luctari/*to wrestle*)에 주목한바 있다. 오디세이아에서 변화의 신 프로테우스를 씨름으로 제압한 메넬라우스와는 대조적으로 현상계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자가 될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는 스티븐의 상황을 조명해 부각시키고, 보다 넓게는 3장의 서사를 축어적으로 집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신의 황소'에서 그처럼 핵심적인 낱말을 찾는다면 "버크 주점!"("Burke's!" 1391행)이라는 스티븐의 외침을 들 수 있다. 이 단어는 태아의 성장/탄생과 함께, 본 장의 핵심을 이루는 두 개의 중심축 중 다른 하나인 말의 발화 혹은 육화라는 사건을 자체 수행적으로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면에서 보자면, 이 단어로 시작하는 1391행 이하 두 문단은 스티븐의 외침을 출발신호로 술자리의 젊은이들이 병원을 뛰쳐나가고, 간호사 콜런에게 대신 출산 축하 인사를 건낸 블룸이 젊은이들을 뒤쫓아 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본 장 내내 두서없는 여담을 즐겨온 화자가 다시 한 번 본론에서 벗어나 퓨어포이 남편의 다산에 대해 과장된 찬사를 보내는 것으로 지면을 채우고 있다. 하지만 "버크 주점"이 주의를 요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본 장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패러디라는 형식의 문제와 관련

해서이다. 왜 이 시점에 토마스 칼라일이 장의 마지막 패러디 대상으로 선택된 것일까? 만일 'Oxen of the Sun' 장의 형식구조를 위해 조이스가 윌리엄 피콕(W. Peacock)의 『영어 산문: 맨드빌에서 러스킨까지』(*English Prose: From Mandeville To Ruskin*)를 활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또 그래서 비평가 애써튼(J. S. Atherton)의 지적대로 "러스킨의 스타일로서 영어 산문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왜 굳이 칼라일이라는, 시기적으로도 페이터나 러스킨은 물론 뉴먼에 비해서도 앞서 등장했어야할 문인의 문체를 가장 뒤늦은 풍자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일까?

셰익스피어를 인도와 바꿀 수 없다는 유명한 어록을 남긴 토마스 칼라일을 두고, 비록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의 탁월한 변론가라 칭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본 장에서 그가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도덕주의적이며 인물/영웅중심적인 그의 보수적 역사관을 대변하는 『프랑스 혁명』이 역설적이게도 형식적 측면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서사체 – 즉, 저자 자신과 독자를 흡사 혁명이라는 '비인간적인' 사건의 현장에 내던져진 관찰자, 내지 참관자와 혼동케 만드는 그의 문체 – 를 선보인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의 1849년 아일랜드 여행』과 같은 그의 글이 아일랜드인의 말투를 (영국 상류계급의 고상함과 대비되는) 코크니 어투라고 잘못 명명해 폄하함으로써 그의 굴절된 계급주의적, 인종차별주의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의 문체를 끝으로 본 장의 특정 작가중심 패러디가 종결을 고하고 여러 다양한 방언과 구어체의 범람에 그 자리를 내어준다고 할 때, 이는 칼라일의 바람과는 달리 역사의 시계가 봉건주의가 아닌 혁명과 탈식민주의의 혼란으로 치닫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또 이와 동시에 식민지 독립이라는 사건이 피식민지인들의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반동적이고도 자기배반적인 시련의 연속을 의미함을 환기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사회적 현상은 "a universal grabbing" (1393행)과 같은 표현이 암시해주듯 식민지 유산을 지닌 지역세계 모두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이며, "under starshiny *coelum*"(1408행)과 같은 라틴어 표현이 강조해주듯 새롭게 탄생할 그 어떤 민족국가도 결코 서구제국주의의 저주스러운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냉철한 역사인식의 알레고리적 발현이라 할 수 있다. 다산에 대한 과장된 찬사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신민족국가의 탄생을 둘러싼 신화주의적 서사 역시 허황된 자화자찬일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병원에서 나온 이들이 버크주점으로 향하며 정확한 발언자를 가늠키 힘든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단의 일부에 초점을 두고 나머지 부분을 접근해보자면 하단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문구, “To be printed and bound at the Druiddrum press by two designing females. Calf covers of pissedon green. Last word in art shades. Most beautiful book come out of Ireland my time.”(1454-7행)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문구는 멀리간이 소지한 아일랜드 민요집에 대한 인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터인데, 하지만 만일 이와 더불어, 혹은 다층적 차원에서 이를 『율리시즈』 자체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다면 (“To be...”라는 표현은 그러한 추론적 해석을 가능케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우리는 그 발언을 작품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텍스트의 자기반영적 언명들(“epiphanies written on green oval leaves” III 141, “the tables of the law, graven in the language of the outlaw” VII 868-69, “reading of certain classical passages, aided by a glossary” XVII 389-390)의 연장선상에서, 또 무엇보다 본 장 내에 앞서 등장한 유사 표현들(“a language so encyclopedic” 1203행, “this chaffering allincluding most farraginous chronicle” 1412행)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연대기적으로 뉴먼과 페이터, 러스킨을 뒤따라 등장하는 문학사조의 독보적 흐름 중 하나가 바로 그러한 자기반영성과 화자의 불명확성을 특징으로 하는, 그래서 훗날 조이스 자신이 그 핵심 대표자의 반열에 오르게 될 모더니즘 문학이기 때문이다.

〈토론〉

–<홍덕선> 카알라일의 글이 주는 힘 as rhetoritian 영국의 혼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한 저서를 낸 사람. 영웅심 강조 hero warship

<김길중> 설교적, 교훈적 특성 포함 술집 가는 생산 무관한 상황에서 barrenness의 irony 돋보임.

<홍덕선> 1414행 프로테스탄적인 중산층에 깃든 사고 근면, 노동(일) 가치 중시, 감탄 호소력 있게 느낌표 사용 많음에 주목.

<김길중> outflings utterance의 구체적

<이종일> Burke's 언급

<김종건> Burke's의 외마디 천둥소리가 예고했던 말의 탄생, 음식점 이름 대면서 어디로 가자 도 생략됨 (이를테면 우래옥!) *FW* thunder10번 나옴, 앞에서는 F의 추락, 후에는 Veco Burke's = Birth (유사발음에 착안) 언어의 새로운 탄생, 블룸과 스티븐 조우 부자의 탄생 ... 카알라일 문장 중 그녀에게 피 뚝뚝 흐르는 비프스테이크 먹여라, 등 맘에 드는 구절임. 산후 지저분한 상태, 즉 태반 (←김상욱) 이 언어에 비유됨. 모두들 출발했다는 대화라기 보다 narrative. 지나가는 행인이 경고하는 말투도 포함되어 있음.

언어의 잡탕(?) broken, slang이 많은 율리시스 언어와 차별적으로 다의적인 피네간즈웨이크. 번역할 때 readable해지면 오히려 모순 아닐는지. 모국어 화자에게는 술취해서 떠든 이야기로 들릴 정도임. 이해 범위 안에 들기 바라는 독자의 욕망과 충돌.

<김길중> thunderation 같은 것은 narrator의 목소리, 블랙홀 통과하듯 휘어진 말, 실제 천둥소리인 지 비유적인 언급인지. Mark this farther and remember (1379행) 실제 천둥친 것은 아님.

–<홍덕선> 왜 Burke인가? Sublime에 대한 글 쓴 점 유의해보면 패러디로 작용.

<김석> Burke도 실제 술집명, 또 실제 역 Westroland→Wastleland

<김경숙> burke라는 단어에 출생과 정반대로 목졸라 죽이다, 질식시키다는 뜻도 있으니 재미있음.

<이종일> copulation과 population의 pun, 생산과 연결 안 되는 사정하는 블룸 부부도 연상됨.

<김길중> 카알라일 자식 없었던 점

<송인영> 더블린 강 하구에 Burke's에 있음. 두 개의 canals와 강 구조 볼 때 여자의 womb 모습과 거기에서 나가는 청년들, 카알라일이 마지막인 이유는 장엄한 의고체가 뒷받침하듯 출산의 축하(말, 아기)에 부합됨. the god of the sun 늘 태양신 언급된 점보다 디오니소스 인상적으로 연결됨. wine 등 중첩된 이미지. 12명의 집행관을 갖는 다산 풍요 기리는 디오니소스 축제와 유사함. 디오니소스의 두 번 출산. 헤라의 저주로 태아로 죽을 뻔하다가 제우스 허벅지에 봉합되어 세상에 나오듯이, Burke's를 계기로 Ruskin까지 갔다가 다시 Carlyle의 의고체로

돌아간 것과 일맥상통함.

<김길중> 출산의 삼창 아홉 번 되풀이되는 이 장 머리의 utterance와 여기의 utterance가 맞물려 있는 것 아닌지. Purefoy가 다른 데에도 나오는지? Theodore (god-given) 뜻 연상.

최석무-8장 364행 Theodore Purefoy가 아내에게 연년생을 선사한다. 남성 아버지가 아이를 잉태한 주체임을 부각. 남성 찬양조로 나옴. 노새(mule)의 불능(생식불가) =곧 Bloom의 관점에서 남성의 생식력을 봄.

–<김경숙> 1321행 dear Doady임(Theodore Purefoy 아니라).

<송인영> 왕성한 남근 숭배와 남성의 풍요성 찬미 쪽

<최석무> 8장 블룸의 관점을 빌어보면, 그와 달리 Purefoy는 남자 쪽에 이상 없으므로 이 집안에는 문제 없다 식 진단함.

–<김길중> scholarment를 억지로 동사로, 1445행 maternity의 hospal도 hospital로 녹음에서 읽힘. /k/도 /ch/로 읽힘.

<길혜령> 1444행 /t/ 많이 빠짐

<김상욱> 그 뒤에도 많은 예 있음

<이종일> Kernan (“Grace”) 발음 식도 그러함

<김석> 쉽볼렛 발음 되고 안되고 하듯.

<남기헌> family의 런던식 발음 *JJQ* 35:1 (1997년 가을호) all of ~ 해석해 놓은 부분 있음.

–<김상욱> 1444행 sawbones

<이종일> 1394행 A dedale of lusty youth

<김길중> 그룹명인 듯함.

–<이종일> 1443행 Sorra one o’me knows 의미

<남기헌> 아일랜드 방언에서 devil a bit of me knows (절대 모른다)

<김종건> 1459행 Beer, beef, business, bibles, bulldogs, battleships, buggery and bishops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내용 Blessed도 시작되는 것과 /b/ 두운 연관?

<남기헌> the boys are (atitudes!)
<김길중> famble (집시 용어로 시 쓰다는 뜻?), 3장에서 특별히 사용된 단어 보면 여기서 family와 연관시켜봄직함.
<박진훈> 3장 381행 White thy fambles, red thy gan, 2045행 The Hannigan familyeye.
<이종일> 근처 남성적 이미지 지배적인 곳 /
<윤희환> beatitude (비애티튜드) 로 읽는 발음 착안.
<이종일> 햄릿 = 태양신의 아들
<김길중> 황소인데 cow로 번역되기도 (풍요 상징 포함), oxen은 거세한 소, 원래는 그냥 수소인데 제사지낼 때 ox 대신 cow? 호머 번역 이후 생긴 변화인지 왜 oxen인지 궁금함.

–<김상욱> 니체의 짜라스트투라 언급의 의미? 1431행
<윤희환>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젖을 먹인다 now you're drinking the milks of others *P* 에 나오는 화관의 쓴 소는 수소? 암소?
→ 60차 독회에 언급되었던 부분–제사에 쓰이는 소로서 수소임
<박진훈> 팔복의 이미지가 식민지와 연관됨. 15장 2242행에 반복되는 부분 있음. battlesheep을 battledog로 바꾸면서 영국인들 패러디하는 인상 줌. bishop 단어도 그대로 사용. 영국인= 남성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가능.
<남기헌, 길혜령> 교황 없으나 주교 있는 영국 지칭.
<김길중> battledog는 없는 단어, god의 pun일 수도 있음.
<김상욱> bull이 영국 및 교황 상징. 불깐 수소이니 의도적으로 oxen 택한 것은 아닐까
<이종일> Gifford 주석 cattle = nurses

〈발제 2〉 346쪽 1465행 ~ 348쪽 1527행

버크주점에 도착한 일행은 각자 술을 주문하고, 길에서 그런 것처럼 다시 알아듣기 힘든 대화를 주절주절 이어간다. 대화는 몰리의 매혹적인 외모, 블룸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감자, 낮에 스티븐이 멀리간에게 보낸 전보, 스티븐의 아버지

에게 보내기 위해 멀리간의 숙모가 쓰고 있다는 편지 등으로 그 화제가 계속해 옮아가고, 이어서 멀링거에서 배논이 만난 소녀 밀리와 골드 컵 경마에 관한 이야기로 뒤바뀐다. 더불어 이 부분에서 특기할 점은 밴텀 라이언즈가 합세함으로써 병원에서 나온 10명에 더해 이제 술자리 참석자가 총 11명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네 문단에서 흥미로운 점은 판이한 성격을 지닌 두 개의 전보가 비교돼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하나는 스티븐이 낮에 멀리간에게 보낸 '감상주의자' 관련 전보이고("Mummer's wire. Cribbed out of Meredith" 1486행), 다른 하나는 스티븐 핸드라는 인물이 중간에 낚아채 열어 보았다는 경마 관련 정보를 담은 비밀 전보이다("Stephen Hand... He strike a telegramboy paddock wire big bug Bass to the depot" 1515-16행). 언뜻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전보는 하지만 앞에서 짧게 논한바 있는 작품의 자기수행성과 관련해 한 가지 공통되면서도 흥미로운 해석상의 단초를 제공한다. 표절 시비와 도둑맞은 우편물이라는 연관된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조이스가 『율리시즈』의 독일어 번역자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작품에서의 언급과는 달리 스티븐 핸드라는 실제 인물은 전보의 내용을 훔쳐 본 뒤 다시 원래 상태대로 내용물을 밀봉해 애초의 목적지로 보냈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본 장은 여러 대표적 영국문학가들의 문체를 의도적으로 흉내내 패러디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태양신의 황소를 도적질해 잡아먹은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의 범죄에 비견되는 행위인 것이다. 특히나 훗날 엘리엇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어쩌면 "Waste Land"/Westland라는 제목까지도) 조이스 자신 역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상기해보면 문학이라는 영역에서의 도둑질, 혹은 표절이라는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스티븐이 멀리간에게 보낸 전보의 내용을 다시 돌이켜보게 되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의 전보가 암시하듯, 과연 즐김이라는 행위와 유산이 강요하는 중압감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다소 일반론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동일한 문제를 '태양'이라는 낱말이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관련해 지니는 연관성에 주목해 접근해볼 수 있을 것이다.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명구는 널리 알려졌다시피 16세기 스페인 제국의 위용에 대한 수사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표현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조이스가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 추구한 세계주의가, 고대 그리스나 또는 초기 로마 제국이라는 정신적 뿌리에서 벗어나 그 실질적이고도 세계적인

위용을 드러내게 된 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계화라는 사건이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16세기이고, 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타 대륙 식민지화라는 사건의 동전의 이면이었다는 것이다. 2세기 후 서구문명의 전지구화라는 근대화의 물결이 영국과 프랑스를 통해 다시 한 번 비서구세계를 덮칠 때 반복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조이스가 '태양신의 황소들'을 집필한 1920년의 트리에스테는 제국의 몰락을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조이스에게 제공했고, 이는 장의 내용과 형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태양신의 황소'라는 에피소드를 저녁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배치시킨 데에는 어쩌면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본 장의 이 지점은, 그리고 보다 넓게 보아 조이스 작품세계에서 – 즉 『더블린 사람들』의 "scrupulous meanness"를 그 출발점으로 한다면 자유의 혼돈 그 자체를 긍정하는 『피네간의 경야』를 그 종착점으로 하는 그의 기나긴 창작경로에서 – 이 상호텍스트적 지점은 조이스의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이 더 이상 서구의 이성 중심적 그늘에 머물기를 거부한 시점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즉 칼라일의 패러디를 뒤이어 이어지는, 온갖 방언과 구어체로 점철된 본 카오스적인 문체는 그가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나 칸트류의 서구 중심적 세계주의가 아닌, 카오스모폴리타니즘(chaosmopolitanism: 김석의 신조어)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진 대목에서 조이스가 이 장을 집필하던 당시 191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분리되던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제국의 몰락 지켜보면서 씀. 작품에서 추구해왔던 세계시민주의가 서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고 있음. 6월 16일 11시경 배경, 해 지기 시작할 무렵임. 광범위한 의미에서 더블린의 꼼꼼하고 엄격한 묘사에서 혼돈으로 다가가는 조이스의 작풍 이동.

문학적 성취 위해서 넘어야 할 벽 더글러스 하이드의 식민주의와 오스카 와일드의 지역주의라 하는데, English out of English 세계주의? 독자로서 거북하게 읽지만 ubermensch로 넘어서는 '과정'과 연관된 듯함. 이타카 장을 제일 재미있게 읽은 독자로서 14장을 참 재미없게 읽었음. 봉준호의 괴물, 삶의 추억, 공공의 적들은 서구 영화장르를 비트는데 잘 안되는 면 있음. 봉감독이 제 3세계 면을 보고 웃어젖히는 측면에서 만들었다는 설도 있음.

〈토론〉

–<김길중> 조이스와 봉준호의 비교? 양자 서구 장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종일>서구적 문법을 깨뜨리고 변형시켜서 자신만의 색채 부여. 소설 전체가 흉내내는 척하면서 자기 목소리 냄. 겉보기에 세계주의지만 오히려 자기중심적. 『추격자』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임
<김석> 『추격자』는 히치코크 식의 공포물을 완벽하게 답습한 것 아닌지.
<이종일> 봉준호의 의도는 오히려 어정쩡한 혼합을 통해서 우리 현실 보여주는 점 아닐까.
<남기헌> 감독은 실상 경제적 이유로 CG(computer graphics)사용 못했다는 설도 있음.

–<강서정> 장의 제목 sun(다산, 풍요/군국주의) oxen(힘) 남성적인 것이 결여된 점. 블룸의 입장, 간호사를 애 못 낳는다고 비난한 예; 인식의 경계를 흐려놓는 효과. 헬레니즘(로마전통)+인도 동양의 전통, 초절주의 등 동서양의 불모/성적인 면의 결여 함께 감.
<홍덕선> 이민자 문학의 논점에서 흔히 보듯이 조이스의 rational identity 는 제국의 언어를 흔들어놓으려는 의지 보임. 영국적인 것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세계주의적인 유럽 쪽 전통에 의지하지 않았는지.
<김상욱> Critical Writings 중 “Ireland ... Sages”
속지주의 (영토에 귀속되는 정체성) Irish를 단일화 균질화시키려는 국수주의적 움직임에 일침 가할 만한 혼종성 언급. 조이스는 언어면에서 내부의 이질적 요소를 발견하게 해서 혼종적인 면을 조합하면 폭넓은 민족주의 나올 수 있음. 카알라일 disorder에서 order로
<송인영> 언어 통해서 Eagleton, Jameson, Said의 책 Nationalism, Colonialism, and Literature의 “Modernism and Cosmopolitanism” 나름대로 영어를 역이용 대항에 성공했다는 언급 기억남. 속지주의에 비추어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문제, 12장에서처럼 Citizen을 패러디의 대상으로 안 보려면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김상욱> 왜 Bloom이라는 혼종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았을까. 그는 Irish

Jew, 종교적으로도 유대인이면서 개종자임.

<이종일> 블룸은 여성성도 있음.

<홍덕선> Stephen의 persona도 복합적임. 근대성의 문제도 포함됨. 제국주의와 근대성을 동일시하면 해결점이 사라져버림. 제국주의와 근대성이 맞물려 있기보다 그 너머의 유럽 전통으로 넘어간 의도 찾을 수도.

<남기헌>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서로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뒤로 물러난 게 조이스의 입장. 모든 정체성은 바뀐다 식.

<김경숙> 이데올로기로 굳어지면 또 다른 문제.

–<홍덕선> 조이스의 근대성 문제. 식민지의 지식인 문제 왜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을 찾아갔을까.

<이종일> 근대성을 고민하기엔 조이스의 세계관과 생명력이 편협적으로 보이는 인상을 줌.

<김석> 아일랜드 독립 전 저술, 식민지 너머의 무엇을 추구. 이상적인 부르조아를 블룸에게서 찾았다는 비평가도 있음. 전형적인 식민지 지식인.

<홍덕선> *FW*로 해체되는 국면이 오히려 스티븐의 고민을 흐려놓은 것은 아닌지. 영국적인 근대성을 스티븐 통해서 찾아보려했는데 오히려 유럽 전통으로 피해갔다는 논지 가능.

<손승희> 1930년대 식민지 한국지식인 이상이 식민자 언어인 일본어를 비틀어서 서구적인 어떤 것에 호소한 점과 비교해 봄 직함.

<김길중> 유럽의 서구화와 달리 식민 제국주의 근대화는 식민주의를 통해서 제국의 주체가 근대화를 이끌겠다고 지배의 기치를 듦. 아일랜드의 경우는 일본-한국의 경우보다 모호하지 않았을까.

<남기헌> 산업화라는 근대화 위한 과정 겪은 곳은 아일랜드 북부에 한함.

<김길중> "Ivy" identity politics를 놓고 싸운 것은 분명함.

<김상욱> 우리나라로 생각이 돌아오게 됨.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 속지주의, 일본 왕권→중심 없이 주변적인 목소리 드러나는데 혼란스럽게 느껴짐. 1948년을 건국의 시점으로 잡아야한다는 설이 나올 정도로 분명한 정체적의 기준을 찾게 되는 요즘 정치적 논의 생각남. 일본 열도를 통합할 수 있는 근대화 내세우는 제국을 만든 경우에 비해 볼 때, 우리나라는 아일랜드와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관계에서 역사적인 잔재가 남아있다. 문체의 혼란이 정체성의 혼란과도 닿아있음. Irishness 문제.

<남기헌> 런던 사투리를 일부러 이용해서 (아일랜드 영어도 아님), 영국 산문 역사(카알라일까지) 말하면서 오히려 대화체로 감. 무규칙, 표면상 영어 역사 발달 말하면서도 요즘 네티즌 어투로 도배했다면 독자의 언어소통 문제 있을 듯함.

<김경숙> 속어의 선언문, 아이와 언어의 탄생 이후 afterbirth (태반 나온 이후) 속어, 방언, 혼어도 진정한 언어 일부 아닐까

<길혜령 추가> 19세기 말 제국의 위력이 떨어지면서 영어의 표준화를 통한 영제국의 통합 노력이 강화되었는데, '태양의 소'장은 영국의 형식에 아일랜드의 내용을 담음으로써 제국통합에 대한 조이스의 저항의식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음.

<남기헌> word made it flesh

-<김길중> 삶을 충실하게 mimesis하는 게 소설 장르라 본다면, 현실 알려면 보는 책의 해석은 제각각임. 이 장에 대한 조이스의 생각은 어땠을까. 사태 진단하면서 형식을 부여한 다른 장들과 달리 막상 관념이 난무하는 비실체적, 비구체적인 인상 받음.

<최석무> 자기가 제일 잘 쓴 글이라 말함으로써 재미없는 글을 미화한 점 있지 않을까

<남기헌> 다른 사람 문체 따서 내 이야기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임.

<전은경> 조이스의 언어관이 가장 잘 드러난 장이라 봄. reality를 describe했는데, 조이스는 언어를 feeling으로 말함. 1356행 The stranger still regarded on the face ... 감미롭게 부드럽게 들리는 문체 (여태 논의된 혼란스러운 느낌과 다름) 여성 이야기에서는 이런 문체 사용함. 남성 술집 장면은 설명 아니라 그냥 문체로 보여줌. 조이스가 언어를 대하고 사용하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줌. 이런 의미에서 언어가 전달의 매체라고 보면 어떨는지

<김길중> 재미없다는 인상에 덧붙여, 호머처럼 episodic, 그러나 한 권의 책으로서 제사 지내는 대목에 해당하는 장이라 봄.

<이종일> 획일적인 성향 지닌 소를 조이스가 잡아먹는 셈.

<김종건> 장의 중심 의도는 언어발달사라 한다면 새로운 언어를 낳기 위한 진통, *FW* 현재 지구상에서 언어를 없애겠다는 언급 있음. 내일의 비전 추구로 본다면 도달지는 *FW*, unreadable *FW* = 매스컴의 말장난 보면 비슷함. 언어 갖고 comicism. 백 년 지나면 공통언어가 된다는 언명도 있었음. 이천 개에서 칠백 개 신조어로 사전에 수록되는 걸 보면 그리 먼 이야기도 아님.

<길혜령 추가> '태양의 소'를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에 비유한다면, Andrew Gibson의 *Joyce's Revenge*에서 이 장을 "An Irish Bull in an English Chinashop" 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놓은 것처럼, 영국문체로 아일랜드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Irish bull이라고 할 수 있음. 영국을 상징하는 John Bull을 (잡아 제사를 지내듯이) Irish bull로 바꾸는 것은 Irish bull이 단순히 어리석음의 표출이 아니라 모순적인 표현을 통한 공격과 보호의 이중적 기능의 수행이라는 기발함의 발로임을 보여줌.

〈발제 3〉 348쪽 1528행 ~ 349쪽 1591행

문을 닫을 시간이라는 술집 주인의 발언과 함께 독자는 버크 주점에서 젊은이 일행이 들이킨 술값이 모두 스티븐의 몫임을 확인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배넌이 자신이 멀린가에서 만난 아가씨가 블룸의 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곧이어 매킨토시를 입은 신사가 등장하고 누군가가 그를 리치몬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라고 지목한다. 마감시간에 맞춰 술집에서 쫓겨난 일행은 소방대 소리를 듣고 불이 난 쪽으로 향해 달려가고, 이때 스티븐과 린치, 블룸은 나머지 일행으로부터 빠져나와 나이트타운으로 걸음을 옮긴다. 나이트타운을 향하는 도중 그들은 벽에 나붙은 한 미국인 복음 전도사의 설교 포스터를 발견하고, 그가 메리언 홀에서 행할 지극히 선정주의적이면서도 상업주의적인 천박한 부흥회의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장을 마무리한다. 그렇다면 왜 미국 영어의 어투로 조이스는 장을 끝마치는 것일까? 비평가 해롤드 블룸은 그의 저작 *The Western Canon*에서 "우리...[미국은] 언제나 카오스적이었기에 [지금의] 카오스 시대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설파한바 있다. 비평가와 달리 미국을, 그 나라가 표방하는 가치들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조이스는, 하지만 누구보다 미국이 지니는 가능성과 위력을 명확히 인식했던 것은 아닐까?

〈토론〉

<김종건> 마지막 문단은 스티븐 말 같음
<김길중> 엘리어트의 황무지 시
<윤희환> "Prufrock" 시의 장면 연상되기도 함.
<남기헌> 황무지 시작 (출판 안 된 부분) Irish pub에서 술 먹는 장면 있음. 매켄토시 상술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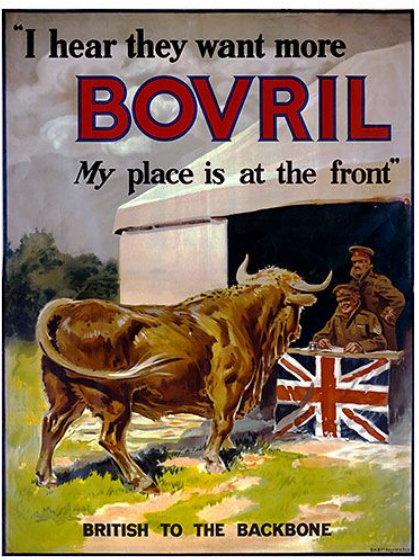
–<길혜령> 여기서 처음 나오는지
<이종일, 김길중> Hades와 Circe 장에도 나옴.
<김종건> 알렉산더의 광고 American 복음 전도사 내용과 광고성 띤 영어

–<김길중> It's me 누가 이말 하는가?
<김석> That's my dame.
<김종건> Stephen Hand 대목은 조이스가 경마 정보를 아버지 통해서 들었다는 점 반영. *P* 마지막 부분 평소 조이스 아버지가 시골에서 만난 농부임이 편지에서 밝혀짐. 갑작스러운 배경 없이 소개되는 부분이 어렵게 느껴짐.
<남기헌> 술 취한 사람 붙잡고 경찰들이 하는 말 독일 번역자 65행-70행
<김종건> Password. There's hair 1485행 12장에 나오는 부분. Joe가 경찰 신분으로서 여자를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임.
<남기헌> 아이가 처음 머리가 자궁 밖으로 나올 때 출산 장면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함. 노래가사에 있음. 지못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굴욕의 순간 지칭)
<강서정> 알렉산더 다우이 에반젤리스트 앞에서도 활동하는 (부분 누락)
<이종일> 갑자기 종교 부각됨.
<김길중> 만신전
<김종건> bloody (경칠) 많이 씀. yellow (빌어먹을) 는 Lynch의 상투어 (15장 a yellow stick)

–<남기헌> 출판당시 문제된 점이 bloody 정도?
<김길중> by all lady (→욕으로)

<남기헌> God damn. Jesus Christ. 이어서 말하면 우스꽝스러운 효과 나옴.

–<김종건> 스티븐과 린치가 밤의 거리로 가게 됨. 멀리간은 배신자라 먼저 사라지고 없음. 오 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블룸이 한 정거장 더 갔다가 되돌아옴.
<김길중> 노일전쟁 언급됨. 아시아 황인종이 러시아를 지배 강력한 인상 남겼던 듯함. 일본 영웅이 된 러일 전쟁의 사령관이 영국 사관학교에서 배운 대로 쓰고 영국에 결과 보고했다고 함.
<김종건> 작은 놈이 큰 놈을 상대로 이기다니 용하다는 평가로 여겨짐.
<남기헌> 1547-8행 Bovril 소의 뜻, 당시 beef tea 상표명. 교황처럼 무오류성 지닌 것이 이 차라고 광고함→아래 자료 참고.
<윤희환> "The Sisters"에서 신부가 마시는 차가 Beef tea임.



–장 제목 "The Oxen of the Sun"에서 Oxen이라는 단어의 성별에 대한 의문
<김석 추가> 호메로스가 사용한 단어 '소'(bous)의 용례 대부분의 경우 '소'는 성별과 무관하게 사용되며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남성), (황소)와 같은 단어를 추가했음.

『일리아드』 17장 389행, 20장 495행에서 bull (황소)로 나옴. (17:389 : And as when a man gives to his people the hide of a great bull for streching.)(20:495 : And as a man yokes bulls broad of brow to tread while barley in a well-ordered threshing-floor,)

『오딧세이아』 12장 340-4행과 396행, 23장 301-5행과 329행에서 cattle(소)로 나옴. (12:340-4: let us cut out the best of Helio's cattle)(12:348-9: But if, in anger over his high-horned cattle, [Helios] wishes to wreck out ship)(12:353: At once, cutting out from near at hand the best of Helios' cattle; for the handsome broad-faced horn-curved oxen were pasturing there,)(12:374-83: we killed those cattle ... they have outrageously killed my cattle ... unless these are made to give me just recompense for my cattle)(12:396 : the noise was like the lowing of cattle, or there was lowing as that of cow)(23:301-305 : killed cattle and fat sheep)(23:329 : He told how his companions ate the cattle of Helios)

참고사이트: (http://www.perseus.tufts.edu/cgi-bin/ptext?doc=Perseus%3Atext%3A1999.04.0057%3Aentry%3D%2320675;/ptext?doc=Perseus%3Atext%3A1999.01.0133&laout=&loc=1.1;/ptext?doc=Perseus:text:1999.01.0135:book=1:card=1)

영어번역: Richmond Lattimore, *The Odyssey of Homer* (NY: Harper Collins, 1991)

<전은경> 『율리시스』에서 'Oxen'은 아예 제목이 '소'로 되어있고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도 4장의 클라이맥스적인 대목에서 소가 언급되는 점에서 고대 희랍에서 소에 대한 생각과 이에 대해 조이스가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음.

<이종일> 『율리시스』 14장 제목도 "태양(신)의 소(들)"로 바꾸는 게 좋을는지도.